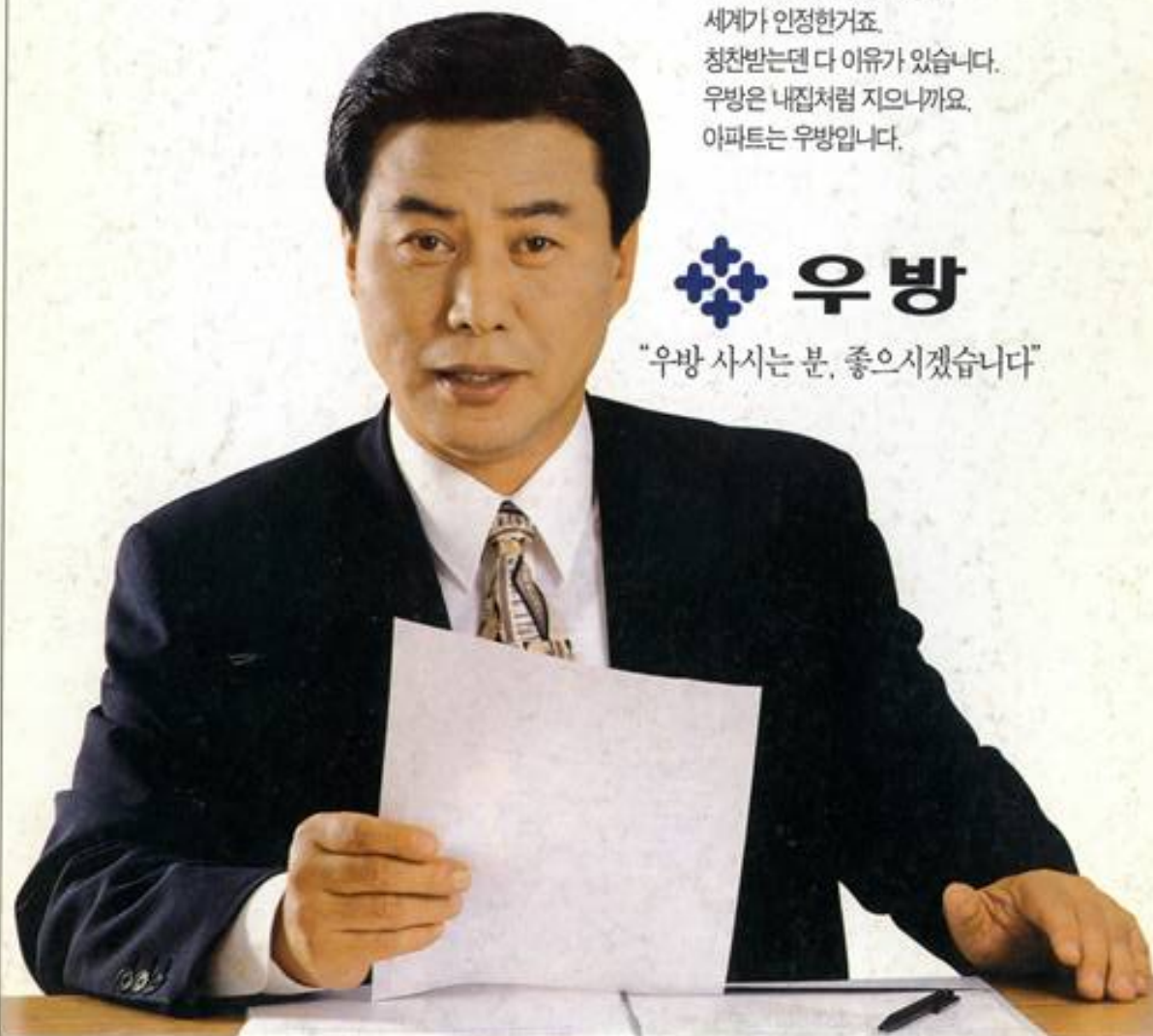


“우방 사시는 분, 좋으시겠습니다”

신도시 입주자 만족도 1위로
소비자 여러분의 격찬을 받은
우방아파트가
품질경영 100선기업
선정에 이어
ISO 국제품질인증까지
획득했습니다.
마침내 우방의 건축품질을
세계가 인정했거죠.
칭찬받는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방은 내집처럼 지으니까요.
아파트는 우방입니다.



“우방 사시는 분, 좋으시겠습니다”



여성



특·집

- 1 김기재 총무처장관 초청 여성정책 간담회
- 2 결혼예식장 이용실태 및 혼례문화에 관한
의식조사

95.11

사단
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KOREAN NATIONAL COUNCIL OF WOMEN

미원의 첨단발효기술이 탄생시킨 저칼로리 감미료 “그린스위트”



세계수준의 발효기술로 만든 건강감미료 그린스위트

그린스위트는 당질이 아니고, 아미노산계 감미료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거의 없어 비만이나 당뇨, 충치 걱정이 없습니다. 특히 다이어트하는 젊은 여성들도 살릴 염려없이 단맛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세계수준의 발효법을 이용한 제조기술

그린스위트는 단백질 식품에 흔히 존재하는 아미노산 성분인 페닐알라닌과 아스파르트산을 결합시킨 아미노산계 감미료입니다. 미원은 그린스위트의 원료인 페닐알라닌의 세계 최고 수준의 고수를 대량생산 기술특허를 미국으로부터 획득하였으며 지난 '93년 11월 국내 식품업계

최초 국제품질인증인 ISO 9002를 획득했습니다.

자연의 달콤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린스위트

그린스위트는 과일, 야채, 우유 등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으로 만든 '아스파탐'이 주성분이므로 천연식품과 동일하게 소화되며 뒷맛이 부드럽고 산뜻합니다.



어떤 음식에도 잘 어울리는 그린스위트

- 가정의 설탕 대용품
- 커피, 우유, 국산차, 과일화제, 각종 요리시 설탕 대용으로
- 콜라, 사이다 같은 청량음료
- 과자, 캔디, 젤 등의 제과류
- 캔커피, 커피믹스, 코코아믹스 등의 분말 다류
- 아이스크림, 사탕, 푸딩, 유산균 음료 등의 디저트식품
- 당의정, 씹어먹는 의약품, 시럽



MIWON (주)미원

월간 여성

월간여성 11월 통권335호

목 적 본회는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지 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④女聲

아름다운 결혼, 주악한 혼수/김취복

⑥여성관련통계

출생성비

특집/① 김기재 총무처장관 초청 여성정책 간담회

② 결혼예식장 이용실태 및 혼례문화에 관한 의식조사

⑧특집/① 김기재 총무처장관 초청 여성정책 간담회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자발적,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⑧특집/② 결혼예식장 이용실태 및 혼례문화에 관한 의식조사

건전한 결혼예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⑨회원단체를 찾아서

한국여성정보인협회

⑩해외여성통신

제1차 세계주부대회, 주부위상 높여야한다고 목소리모아/이영님

⑪여성학 지상강좌

여성과 폭력/임순영

⑫초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육아지원정책/신용자

⑬여성정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

⑭여성계 동향/이구경

⑮협의회 소식

⑯우리들의 광장



아름다운 결혼, 추악한 혼수

김취복 (중앙부인회 회장)

결혼은 아름답다. 사랑으로 맺어지는 한 쌍의 모습은 어떠한 경우라도 아름답다. 기쁨만, 설렘만 반으로 흘리는 신부어머니의 눈물까지도 무척 아름답다. 또한 결혼은 성스럽다. 서로의 일생을 걸고하는 약속의 의식이기때 종교적인 엄숙함과 비견될 만큼 대단히 성스럽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성스러움이나 아름다움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묘한 것이 결혼에 따라다닌다. 바로 혼수라는 괴물이다.

혼수에 관한 이야기는 결혼식의 숫자만큼이나 많다. 재미있는 사실은 잘한 혼수나 못한 혼수가 주종을 이루고 "적당한" 혼수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끔찍함을 자아내는 것은 소위 못한 혼수의 경우이다. 혼수를 둘러싼 고부간의 갈등, 아직 신혼인 부부가 혼수문제로 이혼, 심지어 혼수로 인한 다름때문에 투신자살 등등, 몹시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신문지상을 오르내린다.

여기에서 "호화혼수를 하지마시다"라는, 학교다닐때 만들어 본 불조심 표어 같은 지당한 말을 반복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평범한 시민에서 지도층 인사에 이르기까지 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오히려 왜 이 당연한 말이 실천되지 않는지에 관해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다. 장모님도 되어보고 시어머니도 되어 본 한 여성으로서, 시집보내고 장가들일 때 느낀 점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다.

우선 호화혼수의 근본원인은 어느 한쪽—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상 주로 신랑쪽—에서 그것을 바라기 때문임이 틀림없다. 대단히 점잖고 덕망있는 분들조차 은근히 혹은 노골적으로 백적지근한 혼수를 바라는 것을 자주 보았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라, 자기 자식은 다 잘나 보이고, 그 잘난 자식을 결혼시킬 때 상대방이 무언가 경제적인 보답을 해야만 한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다. 글쎄, 내 자식이 그리 잘나지 못한 탓인지는 몰라도, 내 생각에는 이러한 착각은 어처구니 없다 못해 가여운 생각까지도 자아낸다. 그 귀한 자식을 돈의 가치로 환산해야만 직성이 풀리다니. 인신매매범에게 멸치잡이로 끌려가는 것도 아닌데, 그 까짓 돈 몇푼으로 자식의 자리매김을 할까? 혼수를 잘해와야 자기 자식이 잘난 것으로 평가되는 줄 아는 사람들은 "돈은 최선의 노예요, 최악의 주인"이라는 경구를 다시한번 되새겨 보아야 한다.

공부에 왕도가 없듯이 혼수를 마련하는 데에도 딱 정해진 규칙은 없다. 그저 분수에 맞추어 말 그대로 "적당한" 선에서 혼수를 마련해야 한다. 넘치는 것은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 바라지 말고 주지 말고 주변에서 조용히 해줌으로서, 신부의 순결한 미소와 신랑의 행복한 표정이 돋보이도록 하자.

호화혼수의 또다른 원인은 바라는 상대방에 영합하는 못된 세태이다. 잘 봐달라고 건네는 돈은 아무리 좋게 평가하려해도 귀찮은 냄새를 풍긴다. 통치자금이라고 주장해도 뇌물은 뇌물이듯이, 결혼자금이라 아무리 강변해도 정도를 넘는 호화혼수는 뇌물이 될 수 밖에 없다. 얼마나 큰 결함을 가진 자식을 결혼시키길래 뇌물을 들킵어주는 걸까? 조건없는 돈이라 별 생각없이 받았다고도 주는 사람의 의도는 뻔한 것일텐데, 호화혼수를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자기자식의 축복받아야 할 결혼에 추악함을 보태는 행위를 아무 거리낌없이 행하는 부모들은 정말로 도덕불감증에 걸린 정신질환자이다.

주변의 말(言)도 호화혼수를 부추기는 주요원인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때 주위사람의 말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평소의 교양과 신념을 잘 살려서 지나친 혼수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던 시어머니될 분이 주변 친구들의 수다스러운 입방아에 혹해서 혼수를 더해오라는 주문을 한 경우를 보았다. 자기주변 집안의 결혼에서 호화혼수가 오고가야 직성이 풀릴까? 자신에게 딱 고물이 돌아오는 것도 아닐텐데, "모든 악의 근원은 입니다"라는 속담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닌가 보다.

제발 결혼하는 사람주변에서 이러한 사회범죄적 행위가 근절되었으면 한다. 호화혼수 얘기가 정하고싶거든 사우디 왕가나 영국 왕실의 얘기를 하지, 자기 주변에 그런 얘기를 해서 물 흐르는 미꾸라지 노릇은 하지 말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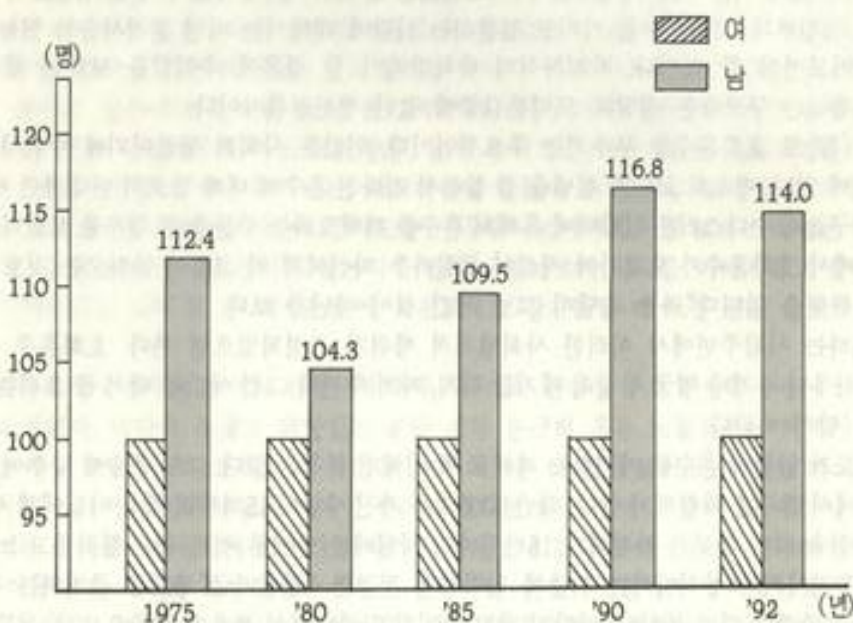
공부에 왕도가 없듯이 혼수를 마련하는 데에도 딱 정해진 규칙은 없다. 그저 분수에 맞추어 말 그대로 "적당한" 선에서 혼수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5000억을 가진 사람이 15억짜리 집을 아들에게 사주었다고 해서 5000만원을 가진 부모가 자식에게 15만원짜리 삼월세를 얻어준 것과 같은 행위라고 느낄 사람은 없다. 결국 우리사회의 상식이라는 기준에 입각해서 진정한 "결혼자금"정도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넘치는 것은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 바라지 말고 주지 말고 주변에서 조용히 해줌으로서, 신부의 순결한 미소와 신랑의 행복한 표정이 돋보이도록 하자.

▶ 여성관련통계

사회의 변화와 함께 여성의 지위가 각 분야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한 눈에 알 수 있게 여성관련 통계를 이번호부터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출생성비

출생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가 태어나는 비율로서 우리나라의 출생성비는 1980년에는 104.3명에서 1990년에는 116.8명, 1992년에는 114.0명으로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소수자녀의 경향 속에서 남아선호의 출산형태가 유지 및 강화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으며 이러한 성비가 계속될 경우 성인 남자가 결혼할 배우자를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남아선호 사상을 불식시키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시급히 이룩하여 균형잡힌 성비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특집

- ① 김기재 총무처장관 초청
여성정책 간담회
- ② 결혼예식장 이용실태 및
혼례문화에 관한 의식조사

다음은 본회가 지난 11월 8일 김기재 총무처장관을 초청해 가진 여성정책간담회 내용이다.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자발적,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인사관리지침 시달, 육아휴직제와 가사휴직 제의 도입, 직장내 탁아소 운영,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의 비율 확대 및 여성 공무원들의 채용 목표제 등을 실시하여 여성공무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조연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런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장으로 있을 적에 그때마침 김영삼대통령께서 여러분들 모임에 나오셔서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따로 마련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후에 제가 바로 그것을 받아서 지방행정 연수원에 시·군의 여성계장, 주사들을 위한 특별 교육 3개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관 진출을 하는데 있어서 여성들은 오랫동안 가사노동을 하면서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남성들과 경쟁해서 사무관 시험에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기숙사에서 6개월간 교육을 받기때문에 훨씬 시험에 유리한 반면 여성들은 그런 기회가

없어서 바로 이러한 교육과정을 만들었고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청에는 여성 주사들이 약 천이백명정도 계시는데 아마 이 교육때문에 사무관 시험에 더 많이 합격되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차관보로 올라왔을때 직접 나서서 여성시장, 여성구청장, 여성파출소장, 여성동장을 모셔오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그외에도 제가 안양시장 할 때나 부산시장 할 때 시정을 수행하는데 여성들이 적극적인 힘이 되어 주었는데 시정의 거의 3분의 2정도가 여성지도자들의 도움없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제가 여성들의 비중을 높게 두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제가 공무원을 시작할 70년대초 바로 새마을운동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도시사회의 여러가지 병폐를 치유하는데 새마을 지도자들이 많이 앞장 서 주셨고 그중에서도 특히 여

성지도자들이 헌신적으로 나서셔서 여러가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도시행정을 수행하는데 여성들의 역할은 결정적이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때부터 여성들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제가 70년대 중반, 네덜란드에서의 유학과 80년대 하바드대에서 석사를 했을때 이 두번의 유학을 통해서 배운 것은 제 클래스메이트에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아무리 열심히해도 여성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남성우월 사상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오히려 공포증으로 변했습니다. 여성들은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또 특정분야에서는 남성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종래의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노동력을 위주로 하는 값싼 상품을 수출하는데서 이제는 고도의 정보, 지식산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는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않으면 안될 때가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GNP 일반불시대를 구가하고 있고 이번 주에는 UN에 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도 하게되고 OECD회원국의 가입도 목전에 두고 있을 정도로 우리의 국력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가지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개인GNP를 이만불, 삼만불 수준으로 올려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산규모가 현재보다 2배, 3배로 더 크게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은 주변에서 많이 사장되고 있는 질 높은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의 경제규모는 세계에서 열 두번째로 크게 상승이 되었지만 과연 우리 모든 사회체제나 국민의식 수준이 그 정도에 와 있는지는 아닌지 아직은 훨씬 뒤떨어져 있기때문에 국력의 수준이나 국가의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도 역시 여성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무처에 와서도 총무처의 여성공무원 296명과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이는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때문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는 맞벌이 부부이고 딸도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유학하고 있는데 역시 열심히 사회에 참여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제도가 어떤 것이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몇가지 소개드리려 합니다.

저희 총무처는 정부 각 부처 또는 지방청에서 공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부처입니다.

먼저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인사관리지침을 93년 12월에 시달했습니다. 이때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을 별도로 만들어 시달했는데 이것은 공무원의 채용, 보직부여, 승진, 포상, 교육, 훈련을 받는 인사운영 전반에 걸쳐서 여성공무원을 조금도 불리하게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여성공무원들의 인사관리 지침을 시달하게 된 배경은 여성공무원들의 숫자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80년대에 5급과 7급 공무원 공채시 여성들의 합격 비율은 1.5%, 0.5%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90년대에 들어와서는 5%와 7%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9급 공무원의 경우는 80년대에는 10%이던 것이 지금은 40% 가까이로 늘어났고 특히 9급 행정직만 보면 여성합격자들이 60%를 넘고 있어서 앞으로 동사무소나 일선 기관에 가면 여자직원이 주류를 이루리라 생각합니다.

전체 공무원들 중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78년에는 16.8%이던 것이 88년에는 22.7%로 늘어났고 작년말에는 26.5%였습니다. 이만큼 여성공무원들의 비중이 커졌기때문에 여성에 대한 차별을 줄 수가 없으므로 인사관리 지침이 시달이 되었고 지금도 이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작년 연말에 시작된 것인데 여성공무원들을 위해서 육아휴직제, 가사휴직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무처의 여성공무원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296명의 여성공무원중 64%가 기혼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도나 시설을 마련해 주는 것이 급선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를 60일 주는 것에 덧붙여서 작년부터 시행된 것은 1세미만의 어린자녀를 둔 공무원은 1년이내의 기간동안 육아휴직을 가능하게 했으며 부모나 시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몸이 많이 아파서 간병해야 할 경우 역시 1년 이내 기간동안 휴직을 할 수 있는 가사휴직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아이를 낳거나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여성들이 공직을 떠나야 했던 것이 불과피했는데 이제는 1년씩 휴직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그 기간을 잘 지내고 나면 다시 공직에 복직을 해서 평생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것 외에 직장내 탁아소운영의 절실함을 느끼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과천청사에는 대규모의 탁아소를 신축중에 있으며 광화문 제1청사 쪽에도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들이 마음놓고 근무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도 단기과정이지만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또한 숙소, 안내등의 문제때문에 여성공무원들에게 제외된 해외연수를 금년부터 여성공무원들에게 정책연수제를 도입해서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했고 제도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의 비율을 확대하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332개 정도 있으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위원들의 비율은 80년대 중반에는 2%이던 것이 오늘날에는 7% 수준이며 2000년대초까지는 여성위원 비율을 30%까지 제고하도록 지시가 내려졌고 총리께서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들의 채용목표제 실시입니다. 이 명칭이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가산점제도로 하자, 채용비율제로 하자 등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결국 채용목표제로 결정되었습니다. 가산점

을 무작정 많이 주는 것도 국민의 평등권에 문제가 있고 가산점을 주지 않아도 9급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여성들이 60%~70%를 차지하고 있는데 가산점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었으며 고용할당제도 나름대로 여러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직에 있어서 여성의 채용은 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5급공무원, 7급공무원에서의 여성의 수는 6% 정도입니다. 이것을 무리가 없도록 단계적으로 비율을 끌어올리자는 것이 기본구상입니다. 내년에는 10%, 97년에는 13%, 98년에는 15%, 2000년에는 20%까지 끌어올리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것의 운영은 여성의 채용 목표를 정해놓고 남녀 차별없이 시험을 치루어서 여성의 합격숫자가 많아서 자연적으로 이 목표를 상회하면 그냥 그대로 합격율 다 시키되 만약에 목표에 미달할 경우에는 모자라는 숫자만큼 별도로 더 채용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100명을 뽑는 직군의 경우 여성합격자를 10명으로 목표를 세웠는데 7명 밖에 합격이 안되면 합격한 100명은 합격자로 인정하고 여성 10%에 미달하는 3명은 차점자 순으로 더 합격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렇게되면 남성들에게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점수가 너무 낮은 사람까지 합격을 시키면 전체 여성관리직에 대한 자질 시비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고시의 경우에는 커트라인에서 3점미까지만 인정하고 7급의 경우 커트



라인점수에서 5점미에까지 인정을 하되 여기까지 낮추어도 해당이 안되면 도리가 없으며 점수를 낮출때 해당자가 있으면 상위점수부터 끊어서 목표를 채우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있어 적용을 못할 것이 있습니다. 채용인원 자체가 한 명, 두 명 정도 밖에 없는 직군의 경우는 적용할 수가 없기에 한 직군에서 모집인원 10명 이상을 뽑는 경우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채용목표제가 이번에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외적으로 발표할때 영원히 하는 제도는 아니고 2000년까지 목표를 잡아 한시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아마 이런 식으로 하면 2000년대에는 여성합격자 수가 목표보다 훨씬 앞서가진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여성단체에서 요구하기때문에 이런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경제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있어 고급 인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에서 여성공무원들의 흡수대책과 문호개방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이외에도 국가 전체 발전을 위해서 여성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는게 좋겠는가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저희에게 알려 주시면 주저없이 받아들여서 제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응답〉

▶ 이한순(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부회장) : 저는 조흥은행 이대 출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은행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는 양적인 면이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본인과 주위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정착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제나 가사휴직제도 필요하지만 그이외에 교육 프로그램에 직업의식을 포함한 의

식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윤수경(국회 여성특별위원회 보좌관) : 장관님께서 여성공무원의 증원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 문제와 아울러서 보다 실질적인 평등이 이루어지려면 의식의 문제가 더욱 중요합니다. 공무원 사회는 위계질서적이고 규범적이기 때문에 보수적이며 여성에 대한 의식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여성을 채용하는 것과 아울러 여성에 대한 낮은 의식이 같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또한 그동안 제가 국회에서 보니까 여성들에게 남성에게 어떻게 대하라는 예절교육을 따로 시키는 반면 남성들에게는 여성들에 대한 의식을 바꾸는 변화 프로그램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변화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장관 : 두 분이 거의 같은 뜻의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남성들의 인식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각종 공무원 교육과정에 성차별을 불식한다든지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넣도록 교육지침에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관련 연구원에서 강의도 맡아주시고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각 직장에서도 수시로 직장교육을 통해 차별이 없도록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하고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성공무원이 숫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많은 차별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공무원의 숫자가 적은 곳에서의 차별적 관행은 남아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광매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소장) : 저희가 듣기로는 승진시에 근무 평가성적을 낼 때에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준다거나 또는 점수를 높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성이 우선 승진해야 한다는 편견과 평점자가 남성이어서 여성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수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시험을 보고 똑같은 점수를 받고 들어온 남녀간에도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채용목표제를 도입하여 여성들이 합격한 경우 제대로 자기 위치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남녀승진시 남성우선주의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장관: 합격자를 동시에 발표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점수로 합격했는지, 누가 보충되어서 합격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무성적 평가시 여성들이 과거에는 불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 신용자(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제가 공무원생활을 30여년하면서 여성들이 요즘처럼 우대를 받는 시대는 역사상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여성공무원의 숫적인 확보도 필요하지만 공무원이 되었을 때 제대로 훈련과 교육을 받은 공무원이 되어 국민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시험에 당당히 들어가 합격을 해서 최대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게 하는 기반조성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 장관: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일반 국민이나 동료들의 인식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편견이나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각 부처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자(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회장): 여성들이 가사휴직할 경우 다시 보직을 받는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정도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의 교육과 해외연수를 할 때 남녀공무원을 따로 교육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교육을 같이하지 않는다는 데에서부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 구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의 확대와 함께 필수적인 탁아소는 직장탁아보다는 지역탁아소를 많이 만드는 것에 주력해야 되리라 봄

니다. 또한 자원봉사를 하는 여성인력이 대단히 많은데 과거에 비해 자원봉사에 별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활동과 자원봉사를 점수화할 수 있게하여 전업을 할 때에 그것이 평가가 되어 반영이 되어야 이러한 활동도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말씀드립니다.

▶ 장관: 가사휴직제와 육아휴직제는 작년 연말에 시달이 되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이 약 87명, 가사휴직은 21명에서 금년에 108명정도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활용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보직의 경우는 과장이상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보직의 문제는 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남녀가 같이 교육을 받는 문제는 기숙사에서 6개월간 같이 생활하는 것을 피교육생들도 원하지 않고 교육자들도 같은 강사나 커리큘럼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같이 해야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여성들이 원하시면 같이 교육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위주로 탁아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탁아소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은 기업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지역단위대로, 사설은 사설대로 만들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내무부에서 자원봉사자법을 만들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했을 경우에 인정을 받고, 점수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바침이 되었습니다. 사회 전 분야에서 자원봉사하신 분들에게 점수로 환산해서 나중에 연결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정영숙(한국지역여성회 회장): 정부 각 산하기관과 단체, 대기업, 중소기업에는 비상기획관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이 직책은 군에서 대령이나 중령급 출신으로 예편한 장교 출신들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한 근무성적으로 나온 여성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이란 이유로 현재까지 아직도 한명도 채용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장관께서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장관: 여군의 경우 과거에는 전투병과가 많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었을텐데 요즘은 전 병과에 여군들이 활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혀 차별대우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군쪽에도 이야기를 해서 그쪽에서 추천할 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영희(여협 근로여성위원, 서울시 의원): 공무원에는 행정직, 기능직, 전문직 공무원이 있는데 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많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실천에 옮기고 계신데, 여성들이 가장 많은 기능직 공무원은 고용직 공무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하여 신분보장은 되어 있지만 기능직 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채용목표제 도입시 모집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되어 있는데 고급 공무원의 채용은 각 부처별로 볼 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명으로 만들어서 5명중 1명이 여성으로 할당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할 수 있으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성공무원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해도 이를 문제삼기 어려운 조직의 분위기로 여성공무원 고충처리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시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 장관: 여성공무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 승진 등의 배려를 위한 논의를 어제 했습니다. 승진에 있어서 적당한 비율대로 안배를 하도록 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따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단위를 5명으로 낮추는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고충전담반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는 잘못된 생각이라 봅니다. 여성고충전담반을 따로 만들면 영원한 차별이 될 것 같고 이것은 제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 윤수자(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회장): 요즘 농촌실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관님께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농촌 여성을 위한 특별한 정책적 배려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일전에 저희 회원들과 여군에 입대한 적이 있었는데 여군중별을 다신 분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는 장군입용을 하도록 법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장군 탄생을 저희는 무척 바라고 있습니다.

▶ 장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주로 중앙부처에서 근무를 해서 농촌 여성들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정부 2장관실과 농림수산부에 전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여군에 장군이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진언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현숙(대한영양사회 정책위원장): 한 나라의 국력은 경쟁력이 기초가 되겠지만 그다음은 국민들의 건강문제가 국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국민의 영양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고 다각적인 연구사업을 하기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을 금년도에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문제를 전담하는 전담부서가 없으므로 영양에 대한 문제를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를 통해 새로운 정책을 계획할 영양전담부서 및 전문인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대해 건의하는 바입니다.

▶ 장관: 저희가 작은 정부와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구를 자꾸 늘리는 것보다 현존 기구안에서 해결하려고 있습니다. 이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구를 바로 증설해야 하는건지 여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목단(한국부녀복지연합회 회장): 장관님의 여성우대에 대한 정책에 만족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전물군경미망인신분이라 직능별 보훈대상자가 되어 군사정권때 입법위원을 했는데 이 때문에 표창을 못 준다는 이야기를 들어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 안생겨 적당히 하자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관: 표창에서 누락되서 속이 많이 상하신 것 같은데, 과거에 입법위원을 하셨다고 해서 명단에서 제외된게 아니고 예전에 훈장을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을 먼저 드리고 계속 더 열심히 하시면 기회가 올 겁니다.

▶ 이인숙(국제존타서울클럽 회원): 장관님께서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유학하시면서 우수한 여성들을 많이 봤기때문에 여성들에 대한 생각이 진작부터 바뀌셨다고 해서 매우 기뻐요 또한 따님도 해외에서 공부하시고 사모님께서도 직장에서 일하신다고 하여 우리나라 여성들의 문제를 잘 이해하시고 여성에 대한 지원을 잘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침에 일찍 온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남녀공무원들이 같이 장기연수를 시키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남편들이 걱정할 것을 염려해서이고 두번째는 여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을 해야 하는등 더 번거롭지 않는가 지적하셨는데, 제가 전반에서 들은 장관님의 생각과 후반에서 들은 말씀이 그림이 안맞아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앞으로 생각하실 때 신세대 여성과 남편은 달라서 남성들도 부인이 적절히 평가받고 인정을 받아서 좀 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할 테니까 장관님도 생각을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 장관: 이것이 한국 남성의 현주소입니다. 특히 저처럼 50대 남자는 그런 이중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전통적인 면도 남아있고 외국 물을 먹어서 달라진 면도 있고 한 것은 시인을 합니다. 교육받으러 오시는 여성공무원들이 남녀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언제라도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인식을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은방희(한국여성문화생활회 회장): 총무처 소관은 아니더라도 지방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도 5급시험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15대 시, 도에서 100명을 모집하는데 한 시, 도에 약 6~7명되고 이것은 행정직 3명, 기계직 1명 등으로 1, 2명을 뽑는데 여성공무원을 할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지방공무원은 숫자가 좀 더 늘어나고 어느 한 도에서 행정직을 10명 이상 뽑게되면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박애경(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소장): 탁아소 운영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가 있는데 부모가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에 대한 방과 후 아동지도의 제도적 보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장관: 방과 후에 보육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 그리고 기존 시설에 설치하는 두가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규칙을 개정중에 있다고 합니다.

〈서면질의〉

▶ 여직원 성희롱 문제로 서초구 부구청장의 인사문제를 총무처에서 처리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 장관: 서초구 부구청장의 성희롱문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징계요구를 하면 징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처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진상을 철저히 파악해서 응분의 징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전체 여성공무원 수의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총무처내 여성공무원 수와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5급이상 여성공무원 중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어느 부서인지 알려주십시오.

▶ 장관: 5급이상 공무원 숫자는 2만4천6백명입니다. 그중 여성은 475명으로 약 2%입니다. 총무처의 전체 공무원 숫자는 1,400명정도 되는데 여성공무원 숫자는 296명으로 그중 5급 이상은 7명입니다.

그리고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즉 주요부서에 있는 여성이 없는 것은 각 부처 공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맡는 분야는 특수한 분야가 많아 총무처 경우에도 전산분야를 많이 맡고 있고 정부기록보존소의 사서등 전문직에 많아 일반 행정직에 적은 것으로 봅니다.

▶ 남성들의 군복무 가산점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관: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어 건의되었는데 이것은 보훈처가 관리하는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으며 보훈처에서 이것을 받아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등 여러 부처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법을 고치지 못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 박종애(금융노련 정책실장): 현재 공무원 시행령으로 이 목표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확산을 위해서 입법화 추진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 장관: 우선 내년에 시행을 해보고 다른 분야에 파급효과를 보면서 일반 민간 사기업이나 공기업 분야에 확산을 위한 방안도 단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에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10대 과제 중 10대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중심부서로 한시적으로라도 여성부가 생겼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라도 만드실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장관: 저희들은 여성부 신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 정책은 각 부처에서 분야마다 전부 다 해야하는데 여성부가 따로 맡아서 하면 일이 제대로 되겠는가하는 의문이 들고 더 퇴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성부가 총리급이 되어 전 부처를 다 협의조정 할 수 있으면 모를까 여성부가 각 부처에다가 이것해라, 저것해라하고 챙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각 부의 장관이 자기 소관에서 여성정책을 강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결혼예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본 조사는 본회 소비자 보호연구위원회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1994년 7월 이후 결혼예식장 이용실태를 대상으로 결혼예식장 이용실태를 부대서비스 이용강요 여부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알아보았다. 또한 실제로 소요되는 예식비용과 서울시내 소재하는 60개의 허가예식장을 조사하여 이들 예식장이 받고 있는 예식비용을 비교분석해 보았으며, 신혼부부들의 혼수 및 혼례문화에 대한 의식과 태도 등을 함께 조사했다.

I. 서론

1. 조사의 목적

요즈음 과다혼수, 호화결혼식 등이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신분이나 경제력 과시용으로 이루어지던 호화결혼식이 이제는 일반 계층으로까지 확대되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남 하는 만큼”은 해야 하고, “일생에 한번 밖에 없는 결혼식”이니까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너무나 예식비용을 무리하게 지출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혼수문제로 가족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심지어는 이혼까지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결혼은 가정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출발점부터 필요 이상의 호화예식, 호화혼수 등으로 시작하고 있으니 어쩌면 이러한 귀결은 이미 예견된 것인지도 모른다.

정부에서는 지난 94년 7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예식업소의 요금제도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그동안의 부대서비스 이용강요, 서비스 부재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호텔 등에서도 예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들의 변칙영업으로 인한 음성적 호화결혼식 폐단 등을 개선하는 등

예식장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개선하고, 예식업소간의 자유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예식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본 조사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1년동안 예식업소들의 부대서비스 이용강요 등 불공정 거래행위는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소비자들의 불만정도와 그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등을 파악하여 현 시점에서 결혼예식의 문제점을 다시한번 점검해 보고자 하였으며, 또한 건전한 결혼예식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예식문화와 혼수 등에 관한 신혼부부들의 의식과 태도도 함께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조사결과는 최근 결혼한 신혼부부들의 결혼예식 실태를 중심으로 오늘날 우리사회의 예식문화를 점검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 국민들의 문제 의식을 일깨워 건전한 소비생활 실천에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며, 결과적으로 건전한 예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우리사회 전체가 건전하고 건강해지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2. 연구방법

본 조사는 결혼예식장 이용실태 및 혼수문화에 관한 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1994년 7월 이후에 결혼예식을 한 서울거주 신혼부부 329명과 서울지역 소재 허가예식장 60개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거친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가지고, 교육받은 본회 모니터 요원이 가구 및 예식장을 방문하여 응답자를 직접 만나 개별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분석방법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PC를 활용, 빈도 분석을 기본으로 하고 응답자의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을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문항과 문항간의 교차분석도 행하였다.

실제조사는 1995년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15일간 이루어졌다.

본 조사는 표본추출방법에서 조사의 편의상 임의적인 추출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신혼부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조사결과가 신혼부부 전체의 의견이나 실태라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으며 대체적인 경향성 정도를 파악해보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II. 조사결과 분석

1. 응답자의 일반적 성격

조사 대상자의 특성과악과 자료분류를 위해 배경사항으로 조사한 응답자의 일반적 성격은 다음과 같다.

최근 결혼한 신혼부부 중 주로 신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혼수나 예식문화에 대한 견해를 비교하기 위해 신랑도 일부 조사대상에 포함하였으며, 그 비율은 <표1>과 같다.(단, 한 집에서 신랑, 신부중 한 명만을 조사하였으며, 두 사람을 동시에 조사하지는 않았다.)

<표 1> 응답자의 성별 분포

응답 항목	빈도 (명)	백분율 (%)
남자 (신랑)	75	22.8
여자 (신부)	254	77.2
계	329	100.0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는 20~25세가 18.8%, 26~30세가 61.4%, 31세 이상이 19.7%로, 최근 결혼한 신혼부부의 나이가 대부분 20대 후반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

항목	빈도 (명)	백분율 (%)
20~25세	62	18.8
26~30세	202	61.4
31세 이상	65	19.7
계	329	100.0

응답자의 학력별 분포는 고졸이하가 27.7%, 전문대졸이 16.4%, 대졸이 49.8%, 대학원 이상이 6.1%로,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가 70% 이상 조사되었다.

<표 3> 응답자의 학력별 분포

항목	빈도 (명)	백분율 (%)
고졸이하	91	27.7
전문대졸	54	16.4
대졸	164	49.8
대학원 이상	20	6.1
계	329	100.0

응답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149만원이 38.3%, 150만원~199만원이 21.9%로 응답자 10명중 6명정도의 가구가 월소득 100~199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200만원~299만원 19.8%였으며, 300만원이상의 고소득가구도 4.9% 있었고, 99만원미만은 12.2%였다.

〈표 4〉 응답자의 가구당 월소득별 분포

항 목	빈 도 (명)	백 분 율 (%)
99만원 이하	40	12.2
100만원~149만원	126	38.3
150만원~199만원	72	21.9
200만원~249만원	49	14.9
250만원~299만원	16	4.9
300만원 이상	16	4.9
무응답	10	3.0
계	329	100.0

조사대상 신혼부부의 72.9%는 전세나 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며, 자가를 마련한 경우도 21.6% 있었다.

〈표 5〉 응답자가구의 주거형태

항 목	빈 도 (명)	백 분 율 (%)
자 가	71	21.6
전세 / 임대	240	72.9
부모 소유	7	2.1
무 응 답	11	3.3
계	329	100.0

응답자의 결혼유형은 연애결혼이 67.8%, 반반이 17.0%인 반면, 중매결혼은 15.2%에 그쳐, 요즘 결혼이 주로 연애결혼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응답자의 결혼유형별 분포

항 목	빈 도 (명)	백 분 율 (%)
중 매 결 혼	50	15.2
연 애 결 혼	223	67.8
중매반 연애반	56	17.0
계	329	100.0

응답자의 취업실태를 보면, 남자(신랑)의 경우 대부분 화이트칼라였으며, 여자(신부)의 경우도 취업하지 않은 경우는 28.3%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사무/기술직 또는 전문/자유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요즘 기혼여성들의 취업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응답자의 취업실태별 분포

응 답 항 목	남 자		여 자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비 취 업	-	-	72	28.3
전문/자유직	15	20.0	60	23.6
사무/기술직	49	65.3	81	31.9
기 타	11	14.7	41	16.1
계	75	100.0	254	100.0

2. 결혼예식장 이용실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결혼한 신혼부부의 예식장 이용실태를 예식장소와 예식비용 및 부대서비스 이용강요 실태 등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실제로 예식장을 모니터링한 실태조사 결과와도 비교해 보았다.

1) 결혼예식장 이용 장소 및 예식 시간

〈표 8〉 결혼식 장소

항 목	빈 도 (명)	백 분 율 (%)
전문예식장	166	50.5
각종 단체, 협회회관 등 유료기관	59	17.9
종교기관(교회, 성당, 절 등)	57	17.3
호텔 및 고급 음식점	23	7.0
구민회관 등 무료시설	18	5.5
야외시설	6	1.8
계	329	100.0

먼저, 법률 개정 이후 최근에 어디에서 결혼식을 주로 하고 있는지 그 장소를 알아 보았다. 그 결과, 전문예식장을 이용한 경우가 50.5%로 신혼부부 2쌍중 1쌍만이 전문예식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각종 단체, 협회 회관 등 유료기관(17.9%)이나 종교기관(17.3%)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 예식이 허용된 호텔 등에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도 7.0%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구민회관 등 무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예식장 선택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인은 주차장, 접근용이성 등 식장 주변의 교통환경이 가장 많이 꼽혀(41.7%) 서울의 교통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식장의 시설(21.4%), 종교(13.8%), 비용(10.7%), 결혼식장의 유명도(6.8%) 등의 순으로, 예식장의 시설이나 비용 등 직접적인 요인보다 교통이나 종교 등 환경적인 요인이 더 많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결혼식예식장 선택시 고려요인

항 목	빈 도 (명)	백 분 율 (%)
주변의 교통환경	129	41.7
객실과석수 및 예식장 시설	66	21.4
종 교	43	13.9
비 용	33	10.7
결혼식장의 유명도	21	6.8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10	3.2
기 타	7	2.3
계	309	100.0

이용 예식장별로는 전문예식장의 경우 특히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선택하였고, 호텔이나 전문음식점인 경우는 시설을 상대적으로 많이 고려하였으며, 구민회관 등 무료시설을 이용한 경우는 비용을 상대적으로 증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예식장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신혼부부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종교적인 이유' 때문인 경우 외에, '전문예식장의 부대서비스 강요 등 불친절 때문'이라는 응답이 30.4%로 가장 많아, 전문예식장에서의 부대서비스 강요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10〉 전문예식장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항 목	빈도(명)	백분율(%)
종교적인 이유로 해서	50	31.6
전문예식장의 부대서비스 강요 등 불친절 때문에 예식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48	30.4
단체, 협회 등에 관련있는 사람이 있어서	21	13.3
단채, 협회 등에 관련있는 사람이 있어서	16	10.1
독특한 장소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기 위해	16	10.1
기 타	4	2.5
계	158	100.0

예식장을 계약한 후 계약을 취소해 본 경험이 있는 신혼부부는 5.8%로 나타났는데 그 중 대부분(12쌍)이 전문예식장의 경우였으며, 종교기관 3쌍, 단체, 협회회관 등 유료기관 3쌍, 호텔 1쌍 등이었다.

〈표 11〉 예식장 계약후 취소 경험

응 답 항 목	빈 도 (명)	백 분 율 (%)
있 다	19	5.8
없 다	310	94.2
계	329	100.0

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이유로는 '부대서비스 이용 강요'와 '예식장 유명도' 때문에 다른 예식장을 선택한 경우, 그리고 '비용' 때문 등으로, 역시 부대서비스 이용 강요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계약 취소 이유

응 답 항 목	빈 도 (명)
부대서비스 이용 강요	6
예식장 유명도	6
타 예식장보다 비용이 비싸서	4
예식장이 일방적으로 예식시간 등 계약을 위반해서	2
기 타	1
계	19

결혼식 시간을 파악해본 결과 4쌍 중 3쌍이 주말 낮시간에 결혼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휴일 낮시간에 하는 경우까지 합하면 거의 90% 가까이 주말 또는 공휴일 낮시간에 결혼식을 하고 있어, 교통혼잡이나 예식장 부족문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 수준저하 등 여러가지 문제가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표 13〉 결혼예식 시간

항 목	빈도 (명)	백 분 율 (%)
토·일요일 낮시간(6시 이전)	248	75.4
공휴일 낮시간	42	12.8
평일 낮시간	31	9.4
토·일요일 저녁시간(6시 이후)	4	1.2
평일 저녁시간	2	0.6
기 타	2	0.6
계	329	100.0

〈표 14〉 결혼예식장별 평균 예식비용

단위: 만원
(응답자수)

비용\식장	전체 평균	전문 예식장	호텔/고급 음식점	종교기관	단체,협회 유료시설	구민회관 무료시설	야외시설
식장 대여료	26 (233)	30 (122)	23 (6)	20 (41)	21 (44)	19 (16)	23 (4)
폐백실 대여료	10 (234)	13 (120)	10 (13)	7 (42)	9 (39)	8 (16)	9 (4)
미용 요금	24 (269)	20 (134)	42 (16)	26 (49)	28 (49)	23 (17)	21 (4)
드레스 대여료	69 (283)	69 (143)	91 (18)	73 (49)	64 (53)	51 (17)	56 (4)
사진 촬영비	66 (265)	60 (129)	106 (16)	60 (51)	72 (48)	46 (16)	132 (5)
비디오 촬영비	33 (247)	33 (124)	54 (14)	33 (46)	30 (44)	29 (15)	26 (4)
기타	48 (195)	28 (91)	237 (10)	36 (39)	50 (38)	76 (14)	20 (3)
전체 비용	278 (252)	265 (130)	653 (10)	231 (47)	299 (47)	232 (14)	239 (4)

2) 결혼예식 비용

최근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결혼예식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평균금액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약 278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목별로 보면 드레스 대여료가 69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사진 촬영비로 66만원, 비디오 촬영비 33만원, 식장대여료 26만원, 미용요금 24만원, 폐백실 대여료 10만원 등의 순으로, 식장 대여료 보다는 부대서비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외의 기타 비용으로도 평균 48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필요이상의 예식비용이 지출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를 결혼식 장소별로 보면, 식장이나 폐백실 대여료는 전문예식장이 다소 높고, 그외의 부대서비스 비용은 호텔이나 고급음식점인 경우 월등히 비싼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호텔이나 고급음식점에서 예식을 할 경우 식장대여료가 저렴한 대신 기타 비용이 매우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비용은 전문예식장이 아닌 단체나 협회회관 등 유료시설이나 구민회관 등 무료시설에서도 상당히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이유로 전문예식장이 아닌 회관이나 무료시설 등에서 예식을 하는 경우도 전체적인 예식비용에서는 그다지 많이 절감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이나 전문음식점, 야외시설의 경우 응답자 수가 적어 평균비용을 일반화하는데 다소 무리가 따르나, 전체적인 소요비용을 예식장별로 보면 호

텔이나 전문음식점이 가장 많고, 그다음 단체나 협회회관 등 유료시설, 전문예식장 등의 순이었으며, 야외시설, 무료시설, 종교시설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알아본 예식비용을 60개 예식장을 방문하여 현재 받고 있는 가격을 실태조사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표15〉와 같다.

실태조사에 포함된 예식장은 전문예식장과 호텔 예식장, 그리고 고급음식점, 유료회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비용에 제시된 내용은 대부분 전문예식장 이외의 예식장에 해당된다.

이용자들의 평균 비용이 최고가격 내에 있긴 하나

〈표 15〉 이용자 실태조사와 예식장 실태조사 예식비용 비교

구분 비용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	예식장 실태조사 결과 (n=60)
식장 대여료	26만원 (233명)	최하 9만원 부터 최고 28만원 수준 - 100석 기준 최빈치 15만원 - 250석 기준 최빈치 25만원
폐백실 대여료	10만원 (234명)	받지 않는 경우부터 최고 50만원 까지 - 최빈치 10만원
미용 요금	24만원 (269명)	최하 3만원부터 최고 55만원까지 - 최빈치 15만원
드레스 대여료	69만원 (283명)	최저가격 20만원부터 최고가격 400만원까지 - 보통 30~80만원 선 (턱시도 15만원 선)
사진 촬영비	66만원 (265명)	①원판사진: 규격에 따라 10~60만원 - 최빈치 50만원(11"×14" 10조) ②스냅사진: 10~15만원 선 ③합계: 40~200만원, 최빈치 60만원
비디오 촬영비	33만원 (247명)	최하 10부터 최고 50만원까지 - 최빈치 12만원
기타	48만원 (195명)	부케 10만원 꽃길 10~30만원 단상 생화장식 30만원 케일 20만원 주단 10만원 등

대체로 낮은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 쪽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 감소하게 하려면 절약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한편, 하객집대 실태를 보면 대부분이 피로연을 개최하였으며, 비용은 평균 35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하객집대 실태 및 그 비용

응답 항목	빈도(명)	백분율(%)	평균 비용
피로연 개최	297	90.3	349만원
답례품 증정	10	3.0	319만원
둘다 했다	10	3.0	460만원
둘다 하지 않았다	12	3.6	-
계	329	100.0	전체평균: 352만원

결혼예식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알아본 결과 대부분의 경우에 신랑과 신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결혼예식 비용 부담

응답 항목	빈도(명)	백분율(%)
신랑측	16	4.9
신부측	9	2.8
신랑, 신부 공동 부담	301	92.3
계	329	100.0

결혼예식 비용 부담정도에 대해서 신혼부부들은 70.8%가 '비싸다'는 반응을 보였고, '적당하다'는 의견은 20.7%로, 이용 당사자들이 대부분 그 비용에 대해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텔이나 전문음식점을 이용하여 예식을 한 경우 87.0%가 '비싸다'고 응답하였으며, 전문예식장을 이용한 경우도 82.5%가 그렇게 응답하였다.

예식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에게 어떤 품목이 특히 비싸다고 느꼈는지 물은 결과(2개 중복응답), 68.6%가 '드레스 대여료'를 꼽았고, 그다음 '사진 촬영비', '미용요금', '비디오 촬영비'

등의 순으로, 실제 비용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된 품목들이 많이 지적되었다.

〈표 18〉 결혼예식 비용부담 인식도

응답 항목	빈도(명)	백분율(%)
매우 비싸다	76	23.1
비싼 편이다	157	47.7
적당하다	68	20.7
싼 편이다	17	5.2
매우 싸다	4	1.2
모르겠다	7	2.1
계	329	100.0

〈표 19〉 가격불만 품목

응답 항목	빈도(명)	백분율(%)
드레스 대여료	155	68.6
사진 촬영비	98	43.4
미용 요금	57	25.2
비디오 촬영비	56	24.8
식장 대여료	30	13.3
폐백실 대여료	3	1.3
기타	4	1.7
계	226	중복응답

3) 결혼예식장의 부대서비스 이용강요 실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개정은 예식업소의 부대서비스 이용강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개선하려는 것이 그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법률 개정 이후 실제로 이러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법률개정 이후에 결혼예식장을 이용한 이용자들에게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45.0%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아직도 이러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단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부대서비스 이용강요 경험

응답 항목	빈도(명)	백분율(%)
있다	148	45.0
없다	181	55.0
계	329	100.0

특히, 부대서비스 이용 강요는 전문예식장 이용자에서 그 경험율이 67.5%로 높아서, 전문예식장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대서비스 이용 강요시 품목으로는 '드레스'가 가장 많고, 그다음 '사진 촬영', '신부화장', '비디오 촬영', '부케' 등의 순이었으며, 이러한 이용강요 품목 순위는 대체로 그 비용이 비싼 품목 순위와 일치한다.

〈표 21〉 이용강요 품목

응답 항목	빈도(명)	백분율(%)
드레스	116	79.5
사진 촬영	91	62.3
신부 화장	75	51.4
비디오 촬영	60	41.1
부케	35	24.0
야외 촬영	4	2.7
식당 이용	3	2.1
계	146	중복응답

법률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이러한 사실은 예식장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난다.

예식장 실태조사 결과 부대서비스 이용 강요율을 보면, 드레스가 46.7%로 가장 높고, 그다음 사진 촬영, 신부화장, 비디오 촬영 등의 순이며, 호텔이나 전문음식점, 유료회관 등에서는 피로연(식당 이용)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예식장 실태조사시 품목별 이용강요율

응답 항목	빈도(업소수)	백분율(%)
드레스	28	46.7
사진 촬영	27	45.0
신부 화장	21	35.0
비디오 촬영	16	26.7
야외 촬영	6	10.0
식당 이용	13	21.7
계	60	중복응답

부대서비스 이용 강요비율은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예식장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한 업소의 비율이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은근히 강요 또는 유도하는 업소까지 합하면 아직도 부대서비스를 강요하는 예식업소가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용자들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면서 같은 곳에서 필요한 부대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가 45.8%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문예식장 이외에는 부대서비스를 모두 갖추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전문예식장 이용자의 경우는 당해 예식장에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가 10쌍 중 7쌍(71.7%)으로, 이러한 경향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3〉 예식장과 부대서비스 일괄이용 여부

응답 항목	빈도(명)	백분율(%)
모든 서비스를 당해 식장에서 이용할	151	45.9
모든 서비스를 당해 식장에서 이용하지 않음	178	54.1
계	329	100.0

이를 부대서비스 강요경험 여부별로 보면, 강요경험이 있는 이용자는 70.3%가 당해 예식장에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강요경험이 없는 이용자도 26.0%는 모든 서비스를 당해 예식장에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4〉 부대서비스 강요 경험별 서비스 일괄이용 여부

강요 경험	일괄 이용	일괄 이용함	일괄 이용하지 않음
있 다(n=148)		70.3%	27.7%
없 다(n=181)		26.0%	74.0%

부대서비스를 당해 예식장에서 모두 이용한 이유는 '다른 업소를 이용하기가 귀찮아서/한 곳에서 이용하는 것이 편리해서'가 43.0%로 많았으나, '다른 업소를 이용할 경우 식장이용이 불가능해서' 25.8%, '결혼식 도중 부당한 대접을 받을 것 같아서' 17.9%로,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타의적으로 이용한 경우도 43.7%로 많았다.

〈표 25〉 부대서비스 일괄이용 이유

응답 항목	빈도(명)	백분율(%)
귀찮아서/편리해서	65	43.0
다른 업소를 이용할 경우 식장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39	25.8
결혼식 도중 부당한 대접을 받을 것 같아서	27	17.9
그곳의 상품/서비스가 마음에 들어서	8	5.3
별 다른 생각없이	6	4.0
기 타	6	4.0
계	151	100.0

한편, 부대서비스를 당해 예식장에서 모두 이용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는 '예식장에 해당서비스가 없어서'가 가장 많고(38.1%),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이 나쁜 것 같아서'(25.0%), '주위에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어서' (21.9%), '계약한 예식장의 비용이 비싼 것 같아서'(12.5%)의 순으로 지적되었다.

다른 업소의 서비스를 이용한 품목은 드레스, 신부화장, 부케, 사진, 비디오 등이 비슷한 비율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각의 서비스별로 당해

예식장 혹은 다른 업소를 이용하기 보다는, 한꺼번에 당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모두 다른 업소를 이용하는 일괄이용 형태로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표 26〉 부대서비스 일괄이용하지 않은 이유

응답 항목	빈도(명)	백분율(%)
결혼식장에 해당시설(서비스)가 없어서	61	38.1
상품/서비스 질이 나쁜 것 같아서	40	25.0
주위에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어서	35	21.9
계약한 예식장의 비용이 비싼 것 같아서	20	12.5
기 타	4	2.5
계	160	100.0

〈표 27〉 다른 업소 이용서비스

응답 항목	빈도(명)	백분율(%)
드레스	130	80.2
신부 화장	127	78.4
부케	115	71.0
사진 촬영	106	65.4
비디오촬영	101	62.3
텍 시도	4	2.5
기 타	3	1.8
계	162	중복응답

이용자들이 지적한 예식장 이용과정상 불만사항은 '식장측의 부대서비스 이용 강요', '페백, 드레스 보조요원에 대한 웃돈지급 관행', '예식장 구하기 어려움', '교통 불편', '식장 혼잡', '예식시간 짧음', '계약에 없던 서비스 제공으로 비용증가', '각종 서비스 및 종사원의 불친절' 등의 순으로 지적되어, 예식장에서의 부대서비스 이용강요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법률개정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8〉 결혼예식장 이용과정상 불편사항

응답 항목	빈도(명)	백분율(%)
식장측의 부대서비스 이용강요	72	21.9
페백, 드레스 보조요원에 대한 웃돈지급 관행	68	20.7
예식장 구하기 어려움	67	20.4
교통불편 (주차장)	66	20.1
식장 혼잡	58	17.6
예식시간 짧음	48	14.6
계약에 없던 서비스 제공으로 비용증가	33	10.0
각종 서비스 및 종사원의 불친절	26	7.9
기 타	9	2.7
계	329	중복응답

3. 혼수준비 실태

최근 결혼한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혼수 준비를 누가 주관해서 하는지, 혼수 준비 과정에서 부모의 견은 얼마나 반영되는지, 결혼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결혼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혼수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결혼준비 기간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자유롭게 응답하게 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9〉 결혼준비 기간중 어려웠던 점

응답 항목	빈도(명)	백분율(%)
예단(혼수의 적정수준 파악)	67	22.3
결혼관련 비용 마련	48	15.9
집(전세) 구하기	38	12.6
예식장 예약 및 관련서비스 이용문제	34	11.3
결혼준비 시간 부족	18	6.0
양가 갈등/의견합의	14	4.7
페로연 장소 및 하객접대	4	1.3
심리적문제(내적 갈등, 불안감)	3	1.0
기 타	13	4.3
없 다	62	20.6
계	329	100.0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결혼준비와 관련해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예단을 포함한 혼수의 마련과 관련된 것이며, 또한 양가 갈등이나 의견합의 부분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예단문제는 여자가 어려운 점으로 더 많이 지적하였고(26.7%), 남자는 집구하기(26.2%), 예식장 관련(16.9%) 문제를 더 많이 지적하여 예단 문제는 주로 여자 측, 신부의 문제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 결혼한 신혼부부들의 혼수준비는 누가 주관해서 이루어졌는지 알아본 결과, 신부부모가 주관한 경우가 52.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신부 26.7%, 신랑부모 11.9%, 신랑 6.4% 등으로, 혼수준비는 요즘도 신부측 특히, 신부부모의 몫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 혼수준비 주관자

응답 항목	빈도(명)	백분율(%)
신부 부모	174	52.9
신 부	88	26.7
신랑 부모	39	11.9
신 랑	21	6.4
기 타	7	2.1
계	329	100.0

이를 신부 연령별로 보면, 신부 나이가 많을수록 신부본인이 혼수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져, 신부가 31세이상인 경우는 부모보다 자신이 주관하여 준비하는 경우가 더 많으나, 그 이전 연령대는 60% 이상이 부모가 주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신부연령별 혼수준비 주관자

신부연령 \ 주관자	신 부	신부 부모
25세 이하	18.3%	63.3%
26~30세	27.4%	61.1%
31세 이상	48.6%	27.0%

한편, 혼수준비에 신랑, 신부 당사자 의견과 부모님 의견 중 누구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44.4%, 부모 26.4%, 반반 29.2%로, 부모의견과 당사자 의견 비중이 비슷하게 응답되었다.

〈표 32〉 혼수준비 과정에서 의사결정자

응답 항목	빈도(명)	백분율(%)
당사자	146	44.4
부모	87	26.4
반반	96	29.2
계	329	100.0

남자의 경우 본인의 의견이, 여자의 경우 부모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매결혼(중매+반반)인 경우보다는 연애결혼인 경우 당사자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된다고 응답하였으며(중매: 34.9%, 연애: 48.9%), 교육수준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3〉 성별 혼수준비 의사결정자

결정자	남자	여자
당사자	52.0%	42.1%
부모	17.3%	29.1%
반반	30.7%	28.7%

혼수준비는 본인이 벌어서 하기 보다는(22.2%) 부모가 준비하거나(27.1%) 혹은 부모가 도와주는 경우(50.8%)가 대부분이어서, 혼수를 부모가 주관해서 준비하는 것이 어찌면 당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특히, 고졸이하의 학력층에서는 졸업후 취업 등을 통해 본인이 준비한 경우가 40.7%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대졸이상 학력층에서는 부모가 준비한 비율이 34.5%로 높아 대조적이었다.

〈표 34〉 혼수비용 마련

응답 항목	빈도(명)	백분율(%)
본인이 벌어서	73	22.2
부모가 준비	89	27.1
본인이 벌 것과 부모의 도움	167	50.8
계	329	100.0

우리 사회에서는 결혼이 당사자들의 주관으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부모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들 신혼부부들에게 혼수마련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물은 결과, 51.4%가 '본인이 혼인 전에 벌어서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고,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43.5% 있었으며, '전적으로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은 1.8%에 불과하였다.

〈표 35〉 바람직한 혼수비용 마련방법

응답 항목	빈도(명)	백분율(%)
본인이 혼인 전에 벌어서 마련	169	51.4
부모가 준비	6	1.8
본인이 벌 것과 부모의 도움	143	43.5
미리 장만할 필요 없다	11	3.3
계	329	100.0

실제로는 부모가 전적으로 부담하거나 도와주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인 벌어서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은 대졸 이상의 고학력층(46.2%) 보다 고졸이하의 학력층(64.8%)에서 더 높은 점이 흥미롭다.

집마련 비용 이외에 혼수, 예단, 예식비용 등을 포함한 결혼비용을 알아본 결과, 2,000만원정도 들었다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24.5%, 최빈치), 반 정도가 1,1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들었으며, 평균적으로는 남자가 1,600만원 정도, 여자가 2,3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6〉 결혼비용 (집마련 비용 제외)

응답 항목	빈도(명)	백분율(%)
1000만원 이하	58	18.2
1100~2000만원	154	48.4
2100~3000만원	73	23.0
3100~5000만원	25	7.9
5000만원 이상	8	2.5
계	318	100.0
평 균	남자: 1,603만원 여자: 2,313만원 전체: 2,154만원	

조사대상 중, 가장 적게 든 경우가 200만원이었으며, 가장 많이 든 경우는 2억원으로 나타났다.

소요된 결혼비용은 계획한 예상수준과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 알아본 결과, 예상대로 지출한 경우는 26.1%였고, 예상보다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가 많았으며, 예산을 훨씬 초과한 경우도 17.0%나 되었다.

〈표 37〉 결혼비용 계획과 실제의 차이

응답 항목	빈도(명)	백분율(%)
훨씬 초과	56	17.0
약간 초과	155	47.1
예상대로	86	26.1
예산보다 절약	28	8.5
모르겠다	4	1.2
계	329	100.0

결혼비용이 예상보다 초과된 경우 대부분은 '결혼준비를 위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좋은 것을 사다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고가의 야외촬영이나 호화피로연 등 '새로운 풍속에 따라가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응답도 상당수 있었다. 이는 결혼과 관련된 잘못된 상혼(商魂)이나 결혼문화 형성이 필요 이상의 과소비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그외에 '부모들의 혼수기대'나 '식장에서의 계약에 없던 서비스 증가' 등도 이유도 지적되었다.

〈표 38〉 결혼비용 초과이유

응답 항목	빈도(명)	백분율(%)
상품/서비스 구입시 조금더 좋은 것을 사다보니	130	66.7
새로운 풍속(고가의 야외촬영, 호화피로연, 신상촬영)	57	29.2
부모들의 혼수 기대	26	13.3
식장에서의 계약에 없던 서비스 증가	14	7.2
예상하지 못한 비용 발생	8	4.1
계	195	중복응답

참고로, 응답자들이 혼수로 장만한 것 중 후회되는 품목으로 지정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9〉 후회되는 혼수 품목

응답 항목	빈도(명)
가구(식탁, 문갑, 장롱, 침대등)	36
가전제품(식기건조기, 청소기, 비디오, 전자렌지 등)	22
귀금속(예물)	16
이불(침구류)	13
한복(두루마기)	10
예복	7
LDP	4
그릇	2
할복	2
보료, 병풍	1
망크쇼울	1
없다	215
계	329

4. 예식문화 관련 의식 및 태도
건전한 예식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신혼부부들에게 요즈음의 예식문화가 건전하다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건전한 혼례분위기 조성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등 예식문화와 관련된 의식 및 태도를 함께 알아보았다.

1) 현재의 결혼예식문화 평가

최근 결혼한 신혼부부 당사자들이 평가한 요즈음의 결혼문화는 그다지 건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0〉 요즈음의 결혼예식문화 평가

응답항목	빈도(명)	백분율(%)
매우 건전하다	2	0.6
건전한 편이다	62	18.8
그다지 건전하지 못한 편이다	234	71.1
매우 건전하지 못하다	28	8.5
모르겠다	3	0.9
계	329	100.0

이들이 개선되거나 생략되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결혼식 절차로는 '함들이기'가 가장 많이 지적되어, 응답자 10명 중 7명이 함들이기가 생략 또는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그다음으로는 피로연, 폐백, 청첩장 돌리기, 부조 받기 등의 순으로 지적되었다.

〈표 41〉 결혼식 절차중 생략/개선 부분

응답항목	빈도(명)	백분율(%)
함들이기	232	70.5
피로연 잔치(답례품 증정)	96	29.2
폐백	67	20.4
청첩장 돌리기	42	12.8
부조 받기	39	11.9
비디오 촬영/야외 촬영	31	9.4
부케 던지기	25	7.6
예단	10	3.0
계	329	중복 응답

2) 결혼예식문화 관련 태도

결혼예식 참석범위와 관련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가까운 친지만 참석하여 간소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과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축하해 주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이 비슷한 비율로 나뉘어져, 간소한 결혼식을 위해서는 앞으로 결혼 당사자들의 의식이 많이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42〉 예식참석 범위

응답항목	빈도(명)	백분율(%)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축하해 주는 것이 좋다.	140	42.6
가까운 친지만 참석하여 간소하게 하는 것이 좋다.	155	47.1
무어라 이야기할 수 없다	34	10.3
계	329	100.0

결혼예식에 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 것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결혼식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물은 결과, '식이라는 것은 형식이므로 간소하게 치루고 그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77.8%로 나타났고, '평생에 한번 하는 것이므로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화려하게 성대히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표 43〉 예식비용

응답항목	빈도(명)	백분율(%)
평생 한번 하는 것이므로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화려하게 성대히 하는 것이 좋다	37	11.2
식이라는 것은 형식이므로 간소하게 치루고 그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좋다.	256	77.8
무어라 이야기할 수 없다	36	10.9
계	329	100.0

실제로는 결혼예식에 지출한 비용이 상당히 많고, 예상보다 더 많이 지출하였으면서도, 결혼식이 끝난 이후에는 생각이 다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즘 결혼식의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주말에 물리는 예식시간으로 인한 문제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이 결혼식을 주말이나 공휴일 낮시간에 하고 있고 이로인해 교통문제, 예식장 예약의 어려움, 예식장 혼잡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평일이나 야간에 결혼식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결혼당사자들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표 44〉 평일/야간 결혼식에 대한 견해

응답항목	빈도(명)	백분율(%)
바람직하다	253	76.9
바람직하지 못하다	54	16.4
모르겠다	22	6.7
계	329	100.0

응답자의 76.9%가 평일이나 야간에 결혼식을 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으며, 그 이유로는 '주말 혼잡을 피하고 예식장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을 주로 꼽았다.

〈표 45〉 평일/야간 결혼식에 긍정적인 이유

응답항목	빈도(명)	백분율(%)
주말 혼잡을 피하고 예식장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157	63.8
건전한 예식문화를 형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65	26.4
예식비용이 할인되므로 결혼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21	8.5
남의 시간을 덜 빼앗기 때문에	3	1.2
계	246	100.0

한편, 평일이나 야간 결혼식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은 그 이유로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표 46〉 평일/야간 결혼식에 부정적인 이유

응답항목	빈도(명)	백분율(%)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36	69.2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하여 축의금 등이 적어지기 때문에	5	9.6
관행이 그러하니까	6	11.5
기타	5	9.6
계	52	100.0

신혼부부들은 주말이나 휴일에 결혼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예식장을 고집하지 말고 구민회관, 각종 단체회관 등을 널리 이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많았으며, '평일 또는 야간 결혼식이 일반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그 다음으로 제시하였다.

〈표 47〉 주말/휴일 결혼식 집중 해소방안

응답항목	빈도(명)	백분율(%)
전문예식장을 고집하지 말고 구민회관, 각종단체 회관 등을 널리 이용해야 한다	174	52.9
평일 또는 야간 결혼식이 일반화되어야 한다	98	29.8
식장에 하객을 많이 초대하는 현재의 결혼식 관행이 바뀌어져야 한다	44	13.4
전문예식장의 수를 증가시켜 수요에 부응케 해야 한다	10	3.0
잘 모르겠다	3	0.9
계	329	100.0

식장의 다양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예식시간을 바꾸거나 하객초청 범위를 좁히는 식의 결혼문화 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피로연 개최에 대해서도 '체면상 또는 예의상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나, 현 상황에서 결혼문화에 관한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48〉 피로연 개최/답례품 증정에 대한 견해

응답항목	빈도(명)	백분율(%)
하객들에 대한 충분한 답례로서 두가지 다 필요하다	7	2.1
체면상 또는 예의상 두가지 중 한가지는 해야 한다	242	73.6
허례허식이며 비용증가 요인만 되므로 모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64	19.5
잘 모르겠다	16	4.9
계	329	100.0

그러나, 호텔에서의 예식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56.8%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아, 호화결혼식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호텔에서의 결혼식이 호화결혼식으로 흐르지 않도록 제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49〉 호텔에서의 예식 허용에 대한 견해

응답항목	빈도(명)	백분율(%)
예식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6	14.0
호화예식이 사회문제화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187	56.8
상관 없다	67	20.4
잘 모르겠다	29	8.8
계	329	100.0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의 예식장 이용자들에게 법률개정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아, 이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0〉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개정(예식비용 자율화) 인지도

응답항목	빈도(명)	백분율(%)
잘 알고 있다	33	10.0
대체로 알고 있다	117	33.7
잘 모른다	112	34.0
전혀 모른다	73	22.2
계	329	100.0

법률개정으로 예식장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줄어들었는지 오히려 비용상승만 초래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공정 거래행위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결혼예식 비용의 상승만을 초래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표 51〉 법률개정의 효과에 대한 평가

응답항목	빈도(명)	백분율(%)
예식장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줄어들어 건전한 예식문화가 정착되었다	20	6.1
여전히 불공정 거래행위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결혼예식 비용의 상승만을 초래했다	199	60.5
잘 모르겠다	110	33.4
계	329	100.0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결국 법률개정의 의미가 잘 나타나지 못하고 그 부작용만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3)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 방안
최근 결혼한 신혼부부가 느끼는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 방안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보다는 현실감이 있을 것으로 보여, 그들이 생각하는 현 상태에서 건전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우선방안을 알아보았다.

〈표 52〉 결혼예식 비용 자율화 정착방안

응답항목	빈도(명)	백분율(%)
예식업자의 단속강화	142	43.2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129	39.2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계도	40	12.2
업자들의 경쟁 유도	14	4.3
결혼당사자들의 확고한 태도	4	1.2
계	329	100.0

먼저, 예식비용 자율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예식업자의 단속 강화'와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가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홍보가 필요한 대상이 누구인지,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에 영향을 주는 사람을 물은 결과는 54.4%가 '당사자'를, 30.4%가 '신랑측 부모'를 지적하였으며, '친척, 친구 등 주변사람'을 지정한 경우도 11.6% 있었다. 여자 응답자들은 특히 '신랑부모'를 지정한 비율이 35.0%로 높았다.

〈표 53〉 건전한 혼례 정착에 영향을 주는 사람

응답항목	빈도(명)	백분율(%)
당사자	179	54.4
신랑측 부모	100	30.4
친척, 친구 등 주변사람	38	11.6
신부측 부모	8	2.4
양가 부모	2	0.6
계	329	100.0

건전한 혼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식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지만 개인의 의식전환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건전한 혼례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신혼부부들은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사회윤리, 도덕성 회복', '지도층, 부유층의 솔선수범', '법제화와 가정의례 준칙 단속 강화' 등의 순으로 지적하였다.

〈표 54〉 건전한 혼례분위기 조성방안

응답항목	빈도(명)	백분율(%)
텔레비전,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107	32.5
사회윤리, 도덕성 회복	85	25.8
지도층, 부유층의 솔선수범	63	19.1
법제화와 가정의례준칙 단속 강화	44	13.4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계도	22	6.7
기타	8	2.4
계	329	100.0

건전한 혼례문화 정착은 단순히 혼인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는 결과라고 보여진다.

참고로 혼례식 경험자들이 이와 관련하여 조언하는 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5〉 향후 결혼예식에 대한 조언

응답항목	빈도(명)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겸손하게	78
전문예식장만 고집하지 말고 구민회관 등 이용할 것	28
정보를 많이 얻어 비용 절약	26
주변사람들 신경쓰지 말고 당사자 의견 존중	21
모든 것을 다 구입하지 말고 결혼 후 살림을 늘릴 것	12
예물을 줄이고 돈으로 준비	11
당시 기분에 맞추지 말고 멀리 내다볼 것	6
부모나 선택 뜻에 따르도록	6
친지, 가족만 초대해서 간단히 하도록	4
결혼할 사람과 충분히 대화할 것	4
기타	4

III. 요약 및 결론

본 조사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1994년 7월 이후 결혼식을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예식장 이용실태를 부대서비스 이용강요 여부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실제로 소요되는 예식비용과 서울시내 소재하는 60개의 허가예식장을 조사하여 이들 예식장이 받고 있는 예식비용을 비교분석해 보았으며, 신혼부부들의 혼수 및 결혼문화에 대한 의식과 태도 등을 함께 조사해 보았다.

우선 최근의 예식장 이용실태를 보면, 예식장으로 전문예식장을 이용하는 비율이 50% 정도이며, 주변의 교통환경이 예식장 선택의 첫번째 고려요인이 될만큼 예식장의 교통혼잡은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신혼부부 4쌍 중 3쌍이 주말 낮시간에 결혼식을 하고 있어 이로 인한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예식장 이용시의 가장 큰 문제는 부대서비스 이용 강요를 비롯한 서비스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법률이 개정되어 요금의 자율화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혼부부 2쌍 중 1쌍이 예식장에서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고, 그 품목은 드레스, 사진, 화장, 비디오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체로 일괄이용을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식장에 해당 서비스가 없는 경우 외에는 대부분 당해 예식장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부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편리해지기에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예 식장을 이용할 수 없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결혼식 도중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결혼예식 비용은 평균적으로 270~280만원 정도를 쓰고 있는데, 식장대여료 보다는 각종 부대서비스 비용이 훨씬 더 많고, 따라서, 전문예식장이 아닌 각종단체, 협회 등의 유료시설이나 구민회관 등 무료시설을 이용한다고 해도 그 비용은 크게 절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호텔이나 고급음식점의 경우 식장대여료 이외의 모든 비용이 많이 비싸고, 피로연 등을 강요하고 있어 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들도 예식비용에 대해서는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드레스, 사진, 미용요금, 비디오 촬영비 등이 비싸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혼부부들은 결혼준비 기간 중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예단을 포함한 혼수마련을 꼽고 있으며, 특히 건전한 혼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의식 전환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바, 이들의 혼수준비 실태와 이에 대한 태도 등을 알아 보았다.

혼수준비는 주로 신부부모가 주관하여 준비하며, 당사자 의견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는 경우도 많고, 혼수 비용 또한 부모가 도와주거나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현재 우리의 결혼식이 당사자 중심이라기 보다는 부모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집마련 비용을 제외한 결혼비용은 남자 1,600만원, 여자 2,300만원 수준으로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비용은 예상보다 초과된 것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결국 결혼예식이나 혼수 준비 과정에서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지출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주요 이유는 '조금 더 좋은 것'을 찾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이들은 스스로 요즈음의 결혼문화가 건전하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결혼예식은 그렇게 치루고 있다. 문제가 있으나 뾰족한 해결방법이 없고, 또 있다해도 본인들의 욕심이나 남들 눈을 의식하여 허세를 부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이들은 결혼 이후에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검소하게 할 것'을 권하고 있으며, '주변사람들 신경쓰지 말 것'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축하해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아직도 많고, 피로연은 '체면상 또는 예의상'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러한 예식문화가 바뀌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해 주었다.

그러나, 예식시간에 대해서는 평일이나 야간에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많은데, 이는 주말 혼잡을 피하고 예식장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많은 사람이 참석하여 축하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 평일이나 야간에 예식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결혼식을 올린 응답자들도 법률개정으로 예식비용이 자율화된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그 효과에 대해서도 불공정 거래행위가 줄어들어 건전한 예식문화가 정착되기 보다는 오히려 예식비용의 상승만을 초래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하여, 법률개정 이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나 예식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도 또는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내 주었다.

이들은 결혼예식 비용의 자율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예식업자의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혼례를 치루어본 이들은 건전한 혼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당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신랑부모의 영향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당사자나 부모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건전한 혼례분위기 조성방안으로는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와 '사회윤리, 도덕성 회복'을 꼽았다.

혼인 당사자들은 결혼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결혼이 부모로부터의 독립의 출발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확실한 독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막 출발하는 가정이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부모의 수준과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출발부터 모든 것을 다 갖추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좌절감을 갖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러나보니 물질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게 되고, 그대신 부모들은 이 기회에 자신의 보상심리와 과시욕구를 채우기 위해 결과적으로 결혼문화를 자꾸만 왜곡시키게 된다.

혼인 당사자들이나 부모들의 이러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 교육기관에서의 지속적인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종교기관에서의 결혼예식이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종교기관에서의 교육이나 건전혼례 모형개발 등은 매우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각 종교별로 결혼예식의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여 종교기관에서 예식을 하는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면 좋을 것이다.

결혼예식의 모델개발은 이제 우리사회의 큰 숙제 중의 하나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요즘 우리의 결혼식을 보면 도대체 전통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양식도 아닌 어정쩡한 형식이 되어버린 느낌이다. 함을 지고 동네를 떠돌아다니고 돈을 받아내서 밥늦게까지 노는가 하면, 서양식 웨딩드레스를 입고 식을 올리고 피로연장에서 게임을 자르고는 다시 사모관대를 하고 폐백을 올린다.

선택적이고 비판적으로 외래문화를 수입하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모방하다보니 순수하고 성스러워야 할 결혼식이 시장터잡이 혼잡한 가운데 정신없이 이루어지고, 축하받을 주인공들은 하객들을 남겨둔 채 신혼여행길에 오르기 바쁘다.

이제는 이러한 결혼식을 반성하고 우리 고유문화를 현대화한 건전한 결혼예식의 모형이 준비되어야 할 때인 것 같다. 무언가 새로운 방식으로 하고 싶어도 개개인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현실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면 실천에 옮기는 쉽지 않다. 사회단체가 나서서 이러한 일을 주관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면 건전한 결혼문화의 정착은 그리 어려운 일만도 아니라고 보여진다.

한국여성정보인협회

한국여성정보인협회는 정보과학 및 정보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1992년 8월에 창립하여 정보통신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서 정보통신관련기관, 산업체, 연구소, 학계 등에 속해있는 여성 정보전문인 6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



한국여성정보인협회는 정보과학 및 정보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1992년 8월에 창립하여 정보통신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서 정보통신관련기관, 산업체, 연구소, 학계 등에 속해있는 여성 정보전문인 6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

주요 목적 사업으로는 정보통신과 정보산업관련 기술의 조사연구 및 보급, 정보문화확산을 위한 연구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 여성정보인력 증강 및 활성화, 여성의 정보통신 산업분야 진출 확대를

위한 대안 개발, 회지 및 각종 문헌 발간 등이다.

본 협회의 조직체계는 이기호 회장(이화여대 전산과 교수)과 이춘희 부회장(KIST 실장), 성해경 부회장(한양여전 전산과 교수) 및 감사 2인과 이사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회 사무소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에 소재하고 있고 대전과 부산에 지회가 있다. 또한 회원들은 신기술동향분과, 컴퓨터 교육분과, S/W개발분과, 사업협력분과 등 각 분과연구회 활동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이 있으며 정회원의 자격은 정보과학분야 또는 그 인접과학의 학사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정보산업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여성을 원칙으로 하며, 준회원은 정회원 자격을 갖지 못한 학생 및 개인으로서 정보산업 분야에서 수업중이거나 근무하는 여성이면 된다. 그리고 특별회원은 정보산업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본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법인 및 단체면 된다.

회원들은 인력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협회의 각종 학술활동이나 행사에 참가할 수 있으며, 협회의 각종 발행물들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각종 분과연구회 활동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특별회원에게는 상기 외에 회원사 제품 및 사업내용을 무상 및 우선 홍보, 회원사 의견 정책 반영 강구, 정부지원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과 참여기회 제공 등의 특전이 부여된다.

지난 94년 이래 개최한 주요행사로 「초고속정보통신망 소개 및 현황」 학술강연, 「교육용 소프트웨어 페스티벌」 시연회, 세미나, 상담실 운영, 「경상현 정보통신부장관초청 조찬간담회-정보통신정책과 여성의 역할」 간담회, 「멀티미디어와 컴퓨터 교육」 세미나, 「초고속망 시대와 가정의 변화」

심포지움 등이 있다.

무엇보다 여성정보인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 온 본 협회는 94, 95년 2년 동안 「여성전산인력정보」 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재 완료 테스트 단계에 있으며 96년 1월 1일부터 하이텔을 통하여 서비스가 될 예정이다. 이 「여성전산인력정보」 시스템은 정보통신관련기관, 산업체, 연구소 등에 전산전문인력을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국가정보통신산업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여성전산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여성정보인들의 활동지속성 유지 및 여성정보인들의 공동이익 증진에 기여하며,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95년도 본 협회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다.

▲ 정보문화진흥시책사업

정보문화 마인드 보급 및 계몽과 정보문화의 달 기념행사를 이벤트 위주의 행사로 개최한다.



▲ 여성전산인력정보

공공데이터베이스 개발완료 여성전문인력의 사회참여 확산을 위해 양적, 질적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구축한다.

▲ 학술활동활성화 사업

연간 4회에 걸쳐 정보, 통신관련 정례학술행사를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 문헌발간 및 정보교환사업

본 협회의 계간지를 발간하고 매달 여성정보인 소식지를 발간하며 연간 4회에 걸쳐 각종 학술행사 자료집과 세미나 자료집을 발간한다.

▲ 회원협력 및 봉사사업

행사시 회원참여 프로그램을 극대화시키고 분과위원회 활동의 활성화, 회원의 구인구직사업과 학

술용역, 국제학술행사 참가를 권장하고 회원증명서와 논문게재증명서등을 발급한다.

▲ 협회조직 운영사업

지회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전문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사무분담별 이사회를 조직하고 정례화한다.

▲ 회무운영체제의 내실화

사무자동화의 추진 및 협회의 운영체제정비, 기타 필요한 사업의 계획을 수립한다.

제1차 세계주부대회, 주부위상 높여야한다고 목소리 모아

이영님 (연합통신 외신국 기자)

11개국 7백여명의 주부들이 지난 10월말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제1차 세계주부대회를 갖고 '남성과 여권운동가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자신들의 위상이 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또한 주부회의는 "여성은 가정과 사회, 국가의 기초"라는 전제 아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고령층 여성에 대한 보조금 확대를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제1차 세계 주부대회, '존경' 요구

11개국 7백여명의 주부들이 지난 10월말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제1차 세계주부대회를 갖고 '남성과 여권운동가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자신들의 위상이 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최근 결성된 범세계주부연맹(UNICA) 주최로 사흘동안 계속된 이 회의에는 중남미와 유럽에서 온 약 1백50개 주부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가정관리를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다.

참석자들은 가사에 전념하는 주부들에게 세상이 보다 많은 존경심을 보이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의 일부를 주부들의 몫으로 인정하는 법률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부연맹의 티나 레온지 회장은 개막연

설에서 "주부의 역할은 삶과 문화와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다. 자기 자녀를 키우고 교육하며 노인을 돕고 모든 가족을 돌보는 것도 인도적인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주부들에 대한 연금제도가 마련돼야 하며 주부들도 보건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보수적 성향을 띤 단체 대표들로 "자녀와 가정을 돌보는 것이 모든 일에 우선한다"는 전통적인 입장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독일 대표는 의회의 여성 정원할당제를 주장해 여권운동가들과 같은 견해를 표시했다.

영국단체 '전업 어머니'의 한 대표는 보다 실질적인 입장에서 주부들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세계 개선을 요구했다. 1천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전업 어머니'는

전통적 주부의 역할을 선택한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인데 이 단체는 여권운동 단체들과 정치적으로 의견을 달리 하지는 않지만 선택을 통해 가사에 전념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아르헨티나 주부연맹 회장인 리타 데라자리는 소비자 운동을 통해 기업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주부라는 점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낙태를 반대한다는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지만 10대 자녀들에 대한 성교육에 관해서는 찬성론과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주부회의는 "여성은 가정과 사회, 국가의 기초"라는 전제 아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고령층 여성에 대한 보조금 확대를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하고 회의를 폐막했다.

이들은 또 주부들의 무보수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연구를 5년 단위로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번 주부대회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열린다.

아시아 여성노동자회의, 해외근로자 보호강화 촉구

"아시아의 해외노동 여성"에 관한 국제회의가 10월 하순 마닐라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아시아 각국 정부가 날로 늘어나는 착취와 학대의 위협으로부터 여성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나나 오이시 대표는 여성 노동력을 수출하는 나라는, 이들을 고용하는 나라는 모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해외노동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오이시 대표는 "성차별이 자행되고 있는 노동시장에서, 특히 외국인 여성의 지위는 각종 차별의 대상이 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서 배부된 연구자료에 따르면 여성이 상당비율을 차지하는 해외노동자들은 기준 이하의 급료를 받고 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며 열악한 음식과 불편하고 때로는 위험한 숙소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부로 일하는 여성들의 경우 열악한 처우는 물론, 성희롱과 학대, 그리고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수없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이시 대표는 지난해 해외로 진출한 아시아 노동자중 절반 이상이 여성으로, 이는 지난 76년의 15%, 85년의 27%에 비해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노동자의 권익에 관심이 없는 무허가 알선기관들이 자행하는 불법고용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 중개기관을 통해 취업할 경우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을 때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공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끊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법원, 여성고용할당제에 '위법' 판결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 10월 고용과 승진에 있어 여성에 대한 우대를 규정한 여성 취업 우대조항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유럽연합(EU)의 법적 분쟁에 대한 유권 해석 기관인 ECJ의 이번 결정으로 이와

비슷한 취업에 있어서 역차별적인 여성 우대 조항을 마련하고 있는 EU 집행위원회 회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사건은 독일 브레멘시 공원 관리부의 한 남자 정원사가 브레멘시의 여성 고용특혜 조례로 자신의 여성 동료에 비해 승진에 있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제소한데서 비롯됐다.

독일 법원은 정원사 에크하르트 칼란케의 제소를 이유없다고 기각했으나 ECJ는 정부가 채용이나 승진에 있어 여성에게 일정한 할당량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ECJ는 이번 판결에서 "각국 정부가 고용정책을 결정할 수는 있지만 여성에게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우대'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여권운동가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EU의 이같은 입장이 변화하도록 투쟁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넬 반 디지크 유럽연합의회 여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유럽 각국의 고용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하고 여권위원회는 EU 집행위원회에 대해 여성 고용정책에 대한 태도를 바꾸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독일 여성부의 클라우디아 놀테 장관은 이번 판결이 여성 지위 향상과 관련한 정책 전반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경우 법정 여성정원제를 지적한 것이므로 여성정책에 미칠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IOC, 여성위원 늘리기로

오는 2000년까지 국제 올림픽 조직위원회(IOC) 정원중 최소한 10%는 여성에게

돌아가야 하며 2005년까지는 여성위원의 비율이 20%로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IOC 집행위원회가 촉구했다.

1백6명으로 구성된 IOC에는 현재 여성이 7명 밖에 없으며 IOC가 인정하는 국제 스포츠 연맹 회장으로는 베드민턴 연맹에 중국의 루 성룡, 승마 연맹에 필라 드 부르봉 공주 등 2명의 여성이 있을 뿐이다.

IOC 집행위는 전통적으로 남성의 독무대였던 스포츠계에서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가 돌아가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내년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이 문제를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IOC는 각국 올림픽 위원회에게 IOC 지침을 따르도록 지시할 수 있지만 국제 스포츠 연맹이나 다른 경기단체에는 이를 권유하는 선에 그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남녀평등의 정신이 올림픽 현장에 반영돼 수정되면 국제 스포츠 연맹들도 여성에게 문호를 개방할 수 밖에 없게 된다.

프랑수아 카라르 IOC 사무총장은 "IOC는 변화를 원한다. 당장 쿼타제를 도입하는 것은 원치 않지만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10%는 소극적인 수준이지만 1백97개 회원국의 관습과 종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국가들에게는 10%란 혁명적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카라르 사무총장은 올림픽 행정을 여성에게 개방하자는 생각은 지난해 파리에서 열린 올림픽회의와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IOC부터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클린턴, 미국남성에 가정폭력 중지 촉구

세계적 관심을 끌었던 O.J. 심슨 재판이 끝난 가운데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지

난달 미국 남성들이 가정폭력을 퇴치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여성에게 절대로 손찌검을 해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주례 라디오 방송에서 심슨재판을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가정폭력이 널리 퍼져 있으며 때론 치명적이기도 하다면서 법무부 통계를 인용하여 미국에서 살해된 여성의 3분의 1이 남편, 전남편, 남자친구 등에게 살해됐다고 지적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자신의 의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자랐으면서 대통령, 아버지 또는 남편의 자격이 아닌 가정폭력을 현장에서 본 아들의 자격으로서 가정폭력의 폐해를 미국 남성에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세계관광기구, 섹스관광 근절 결의
카이로에서 열린 세계관광기구(WTO) 제11차 총회에 참석한 67개국 관광담당

장관들과 7백개 여행사들은 연간 1백만명의 미성년자를 매춘부로 만들고 있는 섹스관광을 근절하는데 협력기로 결의했다.

이 결의는 각국 정부에 대해 "조직적인 섹스관광을 근절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을, 여행사들에 대해서는 "섹스관광을 주선하는 업체를 뿌리뽑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각각 촉구했다.

결의는 또 각국 정부가 미성년자 매춘 등 불법적인 매춘행위를 한 관광객들을 더 쉽게 조치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 정부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프란세스코 프란지알리 WTO사무총장은 "우리는 매춘을, 특히 미성년자 매춘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WTO는 "좀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해당 국가들이 다른 부문에서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과 폭력

임순영 (한국성폭력상담소 총무)

한 사회, 더우기 그 사회가 가부장제적 성격을 가진 남녀불평등한 사회라면 그곳에는 어김없이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존재하고 있다. 아내구타가 발생하고, 지속되는 이유는 때리고 맞는 것이 허용되는 폭력문화와 남편과 아내의 불평등한 지위와 역할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I. 들어가는 말

요즘 우리는 각종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폭력의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고, 흉폭화되자 많은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면서 넓게는 정부차원의 민생치안 부재, 좁게는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폭력이란 원래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에게 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결코 힘없고 약한 사람이 자기보다 지위가 높고 강한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이는 개인간, 집단간, 국가간에 일어나는 폭력을 봐도 알 수 있다.

한 사회, 더우기 그 사회가 가부장제적 성격을 가진 남녀불평등한 사회라면 그곳에는 어김없이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존재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들 수 있다.

II. 가정폭력과 성폭력 실태 및 원인

일반적으로 부부사이, 부모(중조부모)와 자식사이, 형제간에 발생한 폭력으로서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거나 가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본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가정폭력의

원인과 대책」1992.) 가정폭력 중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그 정도가 심각한 것은 아내구타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근친성폭력)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통해 아내구타 실태를 살펴보면, 기혼여성 응답자 640명 중 남편으로부터 '손, 발, 주먹 등 몸통이 같은 물건으로 한두대' 맞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45.3%, '다치는 대로 두들겨' 맞은 적이 있는 사람은 9.1%, '칼 등의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 받은 사람이 4.7%이다. 그리고 결혼기간 중 이러한 남편의 폭력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45.8%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남편이 '다치는 대로 두들겨 때거나, 칼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거나 직접 사용한 경우 폭력지후 강제적인 성관계를 당한 적'이 있는 여성은 47.8%에 이르고 있다. 남편의 아내구타로 인한 여성의 신체적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골절상 41%, 관절탈구 21%, 유산 11%, 안구출혈 및 파열이 6%이며 그외 고막터짐, 화상을 입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내구타는 주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피해여성은 신체적 손상의 예도 정신적, 심리적 손상을 입고 인격파탄에 이르기까지도 한다. 그리고 때리는 남편의 35%가 폭력가정에서 자라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아이들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는 것을 보고 자란으로써 폭력을 은연중에 학습하게

되어 제2의 구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아내구타가 발생하고, 많은 경우 이것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때리고 맞는 것이 허용되는 폭력문화와 남편과 아내의 불평등한 지위와 역할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인 통제와 집권의 수단으로, 교육의 이름으로, 그리고 사랑의 이름으로 버젓이 행사되는 폭력은 보다 힘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폭력을 허용하는 인식과 문화를 낳고있다. 아내를 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성의 경우 67.6%, 여성의 경우 46.0%를 차지한다는 것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남성은 사회생활을 하며 가족을 부양해야하고 여성은 가사를 전담해야 하는 고정관념은 남편이 자신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권위를 갖게한다(경제력이 없을 때는 그에 대한 열등감으로 구타를 한다). 아내를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가부장적 의식을 갖고 평등한 부부관계가 아니라 상하관계가 되어 구타를 지속시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맞을 짓을 하니까' 때린다는 왜곡된 인식은 '말대꾸를 해서', '대답을 안하고 남편을 무시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등등 구타에 대한 억지이유를 들게 한다. 결국 폭력문화에 물들어 있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자기 아내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아내구타를 낳고 있으며 아내구타를 있을 수 있는

부부싸움, 제3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가정문제라고 방치하는 관행은 이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한다. 더구나 이혼녀에 대한 사회적 냉대, 여성의 취업과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사회구조 등은 여성이 지속적인 구타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가정폭력 중에서 심각하면서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자녀에 대한 성폭력이다. 주로 아동학대라 하여 자녀를 구타하거나 학대하는 것은 어느정도 알려져 왔지만 아직도 성적인 학대, 즉 근친간의 성폭력문제는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한 사례 중에서 16.7%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며, 이중 48.1%는 아버지(친부, 의부, 양부, 시부)와 형제사이에서 일어난 가정폭력이다. 특히 13세 미만의 전체 어린이 피해자 중 15.4%가 가정폭력의 피해자이다.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근친상간'의 개념으로 이러한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며, 이것이 그다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의 74.4%가 협박과 구타에 의한 것이었음을 볼 때 이는 '근친상간'이 아닌 '근친강간'으로 재인식되어야 하며 그 실태에 대한 올바른 파악이 필요하다. 근친강간은 가족내 연장자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는 가부장적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며, 거의 피해자와 가해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방지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폭력을 사회적인 범죄, 사회문제로 보는 인식의 전환과 사회,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며 기본적인 인권침해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과 함께 피해자들의 쉼터 마련, 가해자에 대한 교화프로그램 마련, 체계적인 성과 폭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자가 한 가구내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다른 성폭력과는 달리 피해가 지속적이고, 반복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가해자들은 자신보다 약하고 낮은 위치에 있고 쉽게 손이 미치는 대상에게 사회생활에서 얻은 적개심이나, 분노, 좌절감을 발산하는데 그 대상이 가족내에서 찾아지며, 사회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성(性)을 도구로 삼음으로써 피해자의 입막음을 쉽게 하고 있다.

결국 아내구타, 근친성폭력 등의 가정폭력은 사회의 폭력성과 성별 불평등이라는 가부장제사회의 특

성을 그 근간으로 한다. 가정폭력은 사회폭력을 반영할 뿐 아니라 폭력을 재생산하고, 가정폭력으로 여성들이 자존적 삶을 살 수 없도록 무기력을 학습하게되므로 이는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여성이 가정밖에서 겪는 폭력은 직장, 일반적인 인간관계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성을 매개로 하여 강제적으로 일어나는 정신적, 육체적, 물리적 성폭력이다. 이는 강간뿐 아니라 추행, 성희롱, 음란전화, 인신매매 등을 포함한다.

〈표 1〉에서와 같이 우리나라는 연간 5천여 건의 강간이 나오고 신고로 보고되는데, 강간 피해자의 신고율은 2.2%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실제로 연간 강간은 35만 건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들은 한적한 곳에서 남자와 마주칠 때 96.9%가, 밤에 혼자 택시를 탈 때 82.0%가, 밤에 혼자 외출할 때 91.8%가 혼자 극장이나 공원을 갈 때 82.0%가, 여자들끼리만 여행이나 등산을 할 때 76.8%가, 어두어진 후에 혼자 집에 있을 때 76.6%가, 낮에 혼자 집에 있을 때 46.7%가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성폭력에 대해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일상생활을 위협할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1〉

연도	보고건수
1985	5,453
1986	5,002
1987	5,034
1988	4,658
1989	5,102
1990	5,519
1991	3,669
1992	3,919
1993	5,298
1994	4,057

(출처: 1985년~1990년은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1년~1994년은 1995년 6월 대검찰청에서 나온 보도자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가는 현

대사회는 여성의 사회활동과 취업을 자극하고 점차 사회에서 여성의 활동반경이 넓어져 자연히 가야할 곳과 만나야 할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러나,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성폭력의 위험은 여성으로 하여금,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가고 싶은 곳을 못가게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경계하게 함으로써, 변화해 가는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뒤떨어질 수 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

특히 직장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은 다른 성폭력에 비해 그 정도가 미약하고 업무수행 중에 있을 수도 있는 일이기때문에 참아넘겨야 한다는 '이유값지 않은 이유'로 많은 직장여성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직장을 떠나게 하고 있다.

III. 대책

따라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방지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폭력을 사회적인 범죄, 사회문제로 보는 인식의 전환과 사회,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며 기본적인 인권침해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우리사회는 이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둘째,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교사나, 의사, 특히 어린이를 직접 상대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즉시 경찰서나

상당기관에 알리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야 한다.

셋째, 피해자들이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가해자와 격리되어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쉼터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곳에서는 정상적인 가정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네째, 가해자에 대한 교화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단편적인 지식전달의 차원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성과 폭력에 대한 교육, 즉 인격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와함께 왜곡된 성문화, 폭력적이며 자극적인 성을 부추기는 환경, 성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실시되어야 가족을 병들고 사회를 황폐하게 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IV. 맺는말

요즘에는 '이미 우리사회는 여성상위시대를 맞았다'느니, '여자들이 정말 살맛나는 세상을 만났다'느니 하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여성운동이나 페미니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해로 인해 우리의 현실을 잘못 판단한데서 오는 결과이다. 아직도 우리 여성들은 사회의 이 동시인으로 존재하면서 많은 억압과 폭력앞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벗어날 어떠한 힘이나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

서 지금은 이러한 여성의 현실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더 이상 폭력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가능한 전략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까지 이러한 상황을 물려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 초점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해 육아지원정책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난 호에 이어 스웨덴, 덴마크, 미국의 육아지원정책에 대해 소개한다.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육아지원 정책

-주요선진국의 사례를 알아본다.-

신용자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1985년 스웨덴 정부가 발표한 「전아동보육제도방침」은 1991년까지 1세 이상의 학령전 아동 전원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자치체가 보육시설을 정비할 의무를 갖게 하였다. 공적보육은 0~6세아를 위한 것, 7~12세의 학동을 위한 것 등을 포함하여 어떤 형태로든 보육을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어린이를 보살필 수 있는 정책적인 보육이 실시되고 있다.

I. 스웨덴

1. 스웨덴의 보육정책의 기본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급증하여 이에 따른 보육시설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여 정부는 영·유아의 보육보장을 가족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삼고 국가정책의 핵심부분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국가가 재정을 보조하는 공적보육제도가 충실한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스웨덴에는 1960년에 「아동·청소년복지법」이, 1976년에 「아동보육법」이 제정되어 이 두 법에 따라서 보육정책을 추진하여 왔는데 1982년에 「사회서비스법」의 제정, 시행으로 이 법에 따라 통일적인 보육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을 근거로 공적보육은 국고의 보조를 받아 각 자치체(코문)의 책임으로 수행되고 있다.

1985년 정부가 발표한 「전아동보육제도방침」은 1991년까지 1세 이상의 학령전 아동 전원에게 보

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자치체가 보육시설을 정비할 의무를 갖게 하였다.

이 방침에 따라서 1990년에는 보육원수가 1만 3,656개소나 될 정도로 보육시설 확충에 전력을 기울인 것이다.

그래서 1990년에는 생후 4개월~6세 미만의 영·유아중 53%가 공적보육의 혜택을 받았고, 2%는 사적보육(인가받은 부모에게 개인적으로 맡기는 것), 24%는 양친의 육아휴직, 19%는 자택에서 일하며 육아 수행, 2%는 직장탁아소등의 혜택을 받는 등 보육문제의 해결에 큰 발전을 보였다.

여기서 공적보육이란 공립보육원, 유치원, 공동보육원, 인가 받은 탁아소의 보육등 국고의 보조를 받는 보육의 형태를 통틀어 말한다.

취학전인 6세아와 상당부분의 5세아들은 공립보육원, 유치원, 인가보모에 의한 탁아, 종교단체, 사회단체운영의 플레이그룹등의 보육시설에서 보살핌을 받는데 이 아이들 중 98%가 공적인 보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7~12세의 학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후에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레저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부분 자치체가 부담하고 부모는 15~20%만 부담한다. 학동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은 가정탁아소에서도 한다.

이처럼 스웨덴의 공적보육은 0~6세아를 위한 것, 7~12세의 학동을 위한 것 등을 포함하여 어떤 형태로든 보육을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어린이를 보살필 수 있는 정책적인 보육이 실시되고 있다.

2. 보육의 체제

스웨덴의 보육서비스는 유아그룹, 형제그룹, 확대형제그룹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유아그룹은 1~3세의 영아그룹으로 10~12명이 한 반으로 편성되며 5명의 아이마다 정규직원 2명이 맡는다. 형제그룹은 3~6세의 유아그룹으로 15~18명을 한 반으로 편성, 5명의 정규직원 1명이 배치된다. 확대형제그룹은 1~12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혼합연령그룹으로 15~18명을 한 반으로 편성하며 유아그룹이나 형제그룹과 같은 비율의 정규직원이 배치된다.

보육료는 영·유아를 위한 탁아소나 유치원 또는 학동보육서비스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월소득이 9천크로네 이하인 경우 75%의 할인 혜택을 받으며, 9001~12,000크로네의 경우 25%의 할인을, 12,001~15,000크로네의 경우 15%의 할인혜택을 받는다.

보육료는 보통 연간 1인 평균 78,300크로네(1,450만원 정도)이며 그중에 국가가 40%, 자치체가 49%, 부모는 11%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각 자치체에 따라 차이가 있다.

3. 재정난에 봉착한 스웨덴의 복지정책

고복지 정책수행을 위한 국민의 고부담정책을 수행해 온 스웨덴이 근래에 와서는 국가재정의 악화로 복지정책의 개혁을 단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계속되는 경제침체와 국가 채무액의 누적으로

국가재정이 매우 어려운데 국민들은 지금까지 누려온 복지의 혜택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1991년 총선에서 반세기 동안이나 집권해온 사회민주당은 선전공약의 「육아 휴직기간의 유급기간 연장」을 이행치 못하여 패배하고 칼 빌트가 이끄는 온건당 중심의 보수연립정권을 탄생시켰으나 빌트정부 역시 재정난을 극복하기 힘들었다.

정부는 할 수 없이 복지정책에 손을 대어 아동수당의 증액을 뒤로 미루고 유급휴가기간을 2일간 단축하고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올리고 지급액을 삭감하는등 복지정책개혁을 단행할 수 밖에 없었다.

1994년의 총선에서는 사회민주당이 결국 재집권하여 잉그발 가르손이 수상직에 올랐으나 "극도로 악화된 재정과 유럽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를 만회하기 위하여 세금을 올리고 복지비를 줄여 국채를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야 한다"고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스웨덴의 이러한 경제상황에서 보육서비스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보육서비스는 자치체가 국고의 보조를 받아 책임지고 있는데 국고보조가 대폭 삭감되어 예산확보가 어려운 자치체가 속속 늘어나고 그래서 자치체에 따라서는 보육서비스 이용자가 이용권을 구입하여 이 이용권 액수에 맞는 서비스를 택할 수 있게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자치체마다 보육료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25~36만원의 범위내에서 소득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을 둔다.

전일제 반의 경우 오전 6시에 문을 열어 오후 6시에 문을 닫는 것이 보통이지만 자치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시간이 단축되는 경향이며 이용권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자치체의 창구에서 정책의 보육료를 지불하고 이용권을 구입, 이 액수에 맞는 보육시설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보육원은 이 이용권을 보아서 판매한 자치체에 경비를 청구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용상황이 나쁜

보육원은 자연히 재정난에 빠지게 될 것이며 이용자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보육시설은 경쟁에서 도태시켜 국고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민의 의견이 단적으로 반영되기도 한다.

수준 높은 보육시설과 운영은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여야 하는데 국가재정의 곤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보육시설을 무조건 확장 지원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웨덴은 보육시설의 충실한 정비와 함께 양친이 육아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안으로 상당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하는 양친육아휴직제도의 적극 실현 쪽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웨덴의 육아지원정책은 탁월한 정도로 충실하며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려는 양친육아휴직제도 역시 세계의 모든 어린이의 부모가 부러워 할만한 내용을 갖추고 있다.

II. 덴마크

1. 기혼여성의 높은 취업률과 보육정책의 필요성

1988년 현재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딸린 여성의 피고용률은 79%로 EC국가중 최고로 알려지고 있다.

1974년에는 0~6세아의 모친중 전업주부로 가정에 남아 있는 여성은 43% 였는데 1985년에는 8%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전일제근무 여성근로자가 같은 기간에 16%에서 35%로 두배 이상 증가하였다.

취업모의 급증으로 영·유아보육문제는 큰 과제로 부상되었다.

덴마크는 어떤 나라의 경우보다 보육서비스가 충실하다. 「사회사업성」과 「지방자치체」의 사회복지국이 책임을 지고, 보육시설 운영자금을 보조하는 공적민간자본에 의하여 운영되는 보육서비스가 있는데 어느 경우이고 거의 같은 수준에서 운영된다.

2. 공적자금에 의한 보육서비스

덴마크 어린이는 7살에 취학한다. 취학이전 나이의 아이들은 소학교에서 하루 3시간씩 취학전 교육을 받거나 다른 보육원에 가서 연장보육서비스를 받으며, 취학전 교육을 받고 연장보육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1989년에 집계한 바에 의하면 3~6세아 중 6세아는 전부, 그리고 5세아는 일부가 취학전 교육을 받았으며 그외의 아이들중 70%는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했는데 이 나이의 어린이 전체의 85%가 공적재정의 보조를 받는 보육의 혜택을 받았으며 학교 이외의 시설을 이용한 대부분의 아이들은 거의가 유치원(61%)을 이용했고 나머지는 혼합연령보육센터나 인가 가정보육원을 이용하는 등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소학교의 수업시간은 학년에 따라 다르다. 지방자치체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보통 7세아는 주 15~22시간, 10세아는 20~27시간이며 8시에 시작하여 오후 3시면 끝나며 요일에 따라서도 다르다. 아이들을 방과후에 돌봐주는 소학교 아동전용센터도 잘 갖추어지고 있어 부모들은 걱정없이 일에 열중할 수 있다. 어떠한 시설에 아이들을 맡기는 아이의 양친은 소득에 따라서 보육비를 지불하는데 양친이 지불하는 비용은 평균 비용의 3분의 1 정도이다. 그런데 지자체가 많은 보조금을 내줄 경우에는 양친이 지불해야 할 납부금은 더 줄어든다.



3. 민간자본에 의한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중에는 기업주가 운영하는 시설도 있으나 그 수는 매우 적다.

덴마크의 경우 민간시설의 보육서비스는 별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여 1989년 0~6세아의 60%가 공적시설의 보육서비스를 받았는데 민간시설의 보육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12%에 지나지 않았다.

EC 국가중 민간시설의 보육원이 공적시설의 보육원보다 수가 훨씬 적은 유일한 나라이다.

민간가정보육은 민간자본에 의한 시설중에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데 1989년 0~6세아의 8%만이 민간교육시설의 혜택을 받았으며 자기집에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는 아이도 2%에 불과하다.

이처럼 덴마크는 양친육아휴직제도도 훌륭하게 정착을 하고 있어 가정과 직장을 양립시킬 수 있는 육아지원정책의 모범적인 국가중 하나이다.

III. 미국

1. 보육의 일반적인 상황

미국의 보육정책은 잡동사니라는 표현을 빌릴만큼 복잡하고 체계가 없으나 그만큼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어 이용자는 오히려 형편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은 편이다.

미국이 육아정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국 경제의 발전기인 1960년대에 여성근로자의 급증으로 아동보육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부터인데 '80년대 이후에는 미국경제의 침체로 빈곤층의 생활지원문제가 모자세대의 증대와 관련되어 육아지원문제가 커다란 정책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미국의 아동문제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심각한 문제는 빈곤아동의 증가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하느냐하는 정부의 시책이다.

그래서 정부는 「빈곤선」이라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았는데 이 「선」 이하에서 살아가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이들이 같은 나이의 전체 아동의 19.6%, 즉 「5명중 1명은 빈곤 아동」이라는 집계 나왔다.

이 엄청난 수의 빈곤아동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느냐하는 문제가 바로 정부의 시급한 과제이다. 더구나 1980년대 이후에는 여성의 취업 증가로 맞벌이 부모의 증가와 모자가정세대가 크게 늘어나 이들을 위한 보육문제도 더욱 커지고 있다.

한 조사통계에 의하면 맞벌이부부세대가 1980년 52%에서 '88년 63%로 증가했는데 이런 증가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아동보육정책의 강화가 시급하다는 인식이다.

2. 보육서비스의 형태

미국의 보육서비스 형태는 친족이나 베이비씨터, 또는 부모에게 의뢰하여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인 「가정보육」 즉 Family day care와 공적인 보육시설인 Day care Center의 두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Day care Center는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보육원과 종교단체, 자선단체가 운영하는 비영리 Day care Center,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보육사업체가 운영하는 것이 있다.

이중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가정보육」 형태인데 이 경우 특히 친족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48%(1985년)나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이의 부모가 타인보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으며 사람을 찾기 쉽고 비용도 절약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베이비 씨터나 부모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28%인데 이 경우 부모가 자기집에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아이와 함께 돌보는 경우가 보통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Day care Center에 의하는 경우는 23%(1985년)인데 '66년 6%, '77년 13%, '82년 15%에서 계속 증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하여 센터에 의한 보육이 보편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통학전 또는 방과후에 돌봐야 할 취학아동을 이들 센터에 맡기는 경향이 늘고 있으며 또한 국가가 돌보아야 할 빈곤아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들 빈곤아동의 보살핌을 이 센터가 맡아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에는 빈곤층 아동을 대상으로 「Head Start」라는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빈곤층 아이들은 취학전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해 취학하면 출발부터 보통아이에게 뒤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 격차를 좁히기 위한 빈곤아동의 지원대책이다.

그런데 이 빈곤아동이 1987년 현재 전체아동의 14%이며 2천년에는 24.5%가 될 것이라는 미국의 국제조사 결과는 이들을 위한 보육시설의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센터가 확충되어야 할 이유는 미국의 생산성 및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충분한 육아지원 대책으로 양친의 노동력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인식에서 기업이 제공하는 직장탁아소나 Day care Center의 증가가 계속 될 것이라는 기대이다.

3. 보육시설의 수용증대와 보육시설의 구조적인 변화
보육시설의 증가와 시설의 확충은 보육종사자의 증가에 이어서 보육구조의 변화라는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미국의 보육서비스 종사자는 1988년 51만8천명인데 그중 40만 6천명은 센터에서, 11만2천명은 자영의 베이비 씨터나 보모로 일하고 있는데 이 수는 1977년 보다 117%가 증가한 수이며 전체 산업의 고용자 총수의 증가율의 4배에 가까운 증가율이다. 즉, 출산적령기의 취업여성은 '77년의 59.5%에서 '88년에는 73.6%로 증가하였다. 보육수요가 그만큼 크게 증대한 것은 여성의 취업구조 변화로 장시간 보육, 휴일 보육 등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래에 와서는 가정보육보다 서비스가 다양한 센터를 선택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데 그 때문에 보육서비스를 자랑할 만한 사립보육원(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사립보육원은 영리의 목적에 맞추어 이용자를 위한 안내와 광고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예를

들면 입원 안내문에 이렇게 홍보한다.

“우리 보육원은 이렇게 서어비스 합니다.”

- ① 원아 각자에게 필요한 과제에 맞추어 보육한다.
- ② 아이들 성장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한다.
- ③ 아이들 개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
- ④ 아이들 각자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도록 도와준다.
- ⑤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정서적, 지적, 신체적 발달을 촉진시키는 근대적인 시설, 환경, 보육기술을 제공하며 아이들 연령에 맞는 직원배치,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 ⑥ 하루에 두번의 스테이크와 간식 등 균형있는 식사를 제공한다.
- ⑦ 낮잠시간에 한 아이에게 한대씩의 침대를 제공한다.

고 공약하고 그대신 보육료는 체납없이 매월 5일까지 납부하도록 당부한다. (보육료는 보통 25만원 정도이다.)

이러한 홍보를 참고하여 아이를 맡길 보호자는 서어비스가 좋은 보육원을 선택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면밀히 체크하고 결정한다.

- ① 보모는 자격증이 있는가.
- ② 아이를 맡아줄 시간이 아이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들어맞는가.
- ③ 보모와 그 가족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가.
- ④ 교육적이며 가정적인 분위기를 중요시 하는가.
- ⑤ 원내 시설에 전기코드가 안전하게 카버되어 있는가.
- ⑥ 아이들에게 알맞는 장난감과 책을 갖추고 있는가.
- ⑦ 일일 시간표가 제대로 짜임새 있게 마련되어 있는가.
- ⑧ 뒷마당은 위험하지 않게 철책으로 튼튼하고 안전하게 손질돼 있으며 아이들의 놀이터는 안전한가. 위험한 곳은 없는가를 살핀후 보육원을 정한다.

▶ 여성정보

다음은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95년 10월 11일 대통령께 보고, 확정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10대 중점추진 과제는 여성을 가사활동에서 풀어주기 위한 사회적 여건조성, 여성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완적 제도장치 마련, 여성취업능력의 개발 및 여성관련 정보이용여건 개선, 성차별적 관행 및 인식개선을 위한 법체제 정비등의 여건조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I. 추진경위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에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맞아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세부시책을 마련할 것을 대통령께 보고드릴바 있다. 이에따라 정부 제2장관실을 비롯한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 실무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10대 중·단기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여 각계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하였다.

II. 기본방향

여성의 육아등 가사활동 부담을 사회가 분담토록 함으로써 여성이 능력과 개성에 따라 사회활동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여건을 조성하며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한 현실적 제약이 상존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공공부문부터 여성고용을 확대하는 등 여성 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하고자 한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여성에게 취업 및 전업에 필요한 기술교육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여성관련 정보활용체제를 구축하며 성차별적 관행과 인식을 근본적으로 시정해 나가기 위한 법체제 정비 등 여건을 갖추어 나가고자 한다.

III. 10대 중점추진과제

여성을 가사활동에서 풀어주기 위한 사회적 여건조성

1. 민간참여를 통한 보육시설의 획기적 확대

민간참여를 통한 보육시설의 확대방안으로는 공동육아협동조합 설립과 종교시설을 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공동육아협동조합 방식은 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당사자인 학부모가 직접 관장함으로써 육아의 내용과 질을 부모들이 결정하고 아동수의 변화에 융통성있게 대응할 수 있는 등 효율성이 입증되고 있다. 이는 보육아동을 둔 30~40가구가 기존가옥을 임차 또는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합원의 출자금은 해당아동이 보육의 필요성이 없는 연령에 이르면 반환한다. 이러한 민간의 자발적, 자구적 역할을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 공동육아협동조합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전국적 조직을 갖고 있는 종교단체의 시설은 정부의 적은 지원으로도 손쉽게 보육시설화 할 수 있으므로 종교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보육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2. 방과후 아동지도제도 도입

민간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아동지도제도를 제도화하여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려는 것으로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에 운영하되 국민학교,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별로 여유시설을 최대한 활용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금년 10월 20일~12월 20일까지 2개월간 시범교실을 운영하여 전국적 확대실시에 필요한 사전준비 및 지원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방과후 아동지도제도 도입을 위한 공공, 민간 시설 개방시 책임과 의무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

3. 학교급식의 전면적 실시

97년말까지 국민학교 급식의 전면실시계획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 투자내역을 조정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학교급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처간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여성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완적 제도장치 마련

4. 여성의 공식참여비율 제고목표 시정

5급 행정직과 외무직, 7급 행정직의 공채에 있어서 여성합격율이 일정수준까지 높아지도록 채용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여성합격자 비율제고 목표는 1998년 15%, 2000년 20%로 하되 채용방식은 여성합격자비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세무대학, 경찰대학, 철도전문대학 등 공무원 양성기관의 현행 여성제한 할당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폐지한다. 또한 각종 정부기관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2005년까지 30% 수준으로 높여 나간다.

(※세무대학: 현행 11%에서 97년 입학정원의 20%, 98년 30%, 2000년 50%로 확대, 철도전문대학: 96년부터 99년까지 현행 3%에서 50%로 확대,

경찰대학: 97년부터 현 4%에서 10% 이상 확대)

5. 공기업 신규채용시 여성고용 인센티브제도 도입

공공부문이 민간부문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우선 정부투자기관등 국영기업의 정규직원 채용시 여성고용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다. 직원 채용시 필기시험에서 여성응시자에게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에게 부여되는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여성이 특별한 이유 없이 면접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6.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부담체계 확립

출산휴가기간(60일) 동안의 급여를 직장에서 고용주가 부담함에 따라 여성고용을 기피하는 요인

으로 작용하므로 출산휴가기간의 급여를 사회보험 등 공공부문에서 분담하는 방안을 국민복지기회단에서 적극 강구하며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제도를 현행 70인 이상 사업장에서 98년까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여성취업능력의 개발 및 여성관련 정보이용여건 개선

7. 여성인력 양성체계 확충, 개선

정보화, 다양화되고 있는 사회인력 수요 변화에 맞추어 중, 고등 교육과정부터 다양한 직업·기술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데 여자상고 및 여자 인문계고등학교를 디자인·전산등 여성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의 특수목적고로 전환, 지원하고 여자대학내 이공계 대학설치 및 기존대학에서도 여성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 학과의 정원을 확대하며 교육부내 여성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또한 출산, 육아 등으로 취업이 중단된 여성인력의 재취업 능력개발을 위해 직업훈련체제를 내실화한다.

8. 여성관련 정보네트워크 구축

여성의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한국여성개발원에 여성정보센터를 설립하며 중앙과 지방의 여성회관, 부녀복지관을 연결하는 정보통신체제를 구축한다.

성차별적 관행 및 인식개선을 위한 법체제 정비등 여건조성

9. 여성개발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사회전반의 전근대적이며 여성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10. 대중매체를 통한 성차별의식 개선

대중매체관련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또한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성차별인식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각종 방송관련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2005년까지 30%로 확대하며 여성문제에 대한 공익광고 제작,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

IV. 향후 추진계획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관계법령의 제, 개정은 '96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소요되는 재원은 '96~'98년간 예산에 반영토록 하되 '96년 예산은 기존예산 범위내에서 투자내용을 조정하여 확보할 것이다.

또한 정부 제2장관실을 중심으로 각부처 추진상황을 종합하고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추진상황을 확인하며 이와함께 상기대책의 성공적 추진에는 민간의 협조와 참여가 긴요하므로 여성단체, 종교계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 나갈 것이다.

고용평등본부 발족

기업의 「고용평등지수」를 매겨 발표하는 등 고용평등운동을 펼치기 위한 고용평등추진본부 발대식이 한국여성민우회 주최로 10월 21일 오후 3시 서울 명동 YWCA대강당에서 열렸다.

고용평등추진본부는 기업의 성차별관행을 감시하고 고발사례를 모아 정부와 기업에 개선을 촉구하는 등 고용평등문화를 앞당기기 위해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김장숙 정무제 2장관과 이수성 서울대총장이 각각 축사를 맡았고 이은영 외국어대교수가 주제강연에 나섰다.

추진본부 공동대표 박완순 변호사는 개회사에서 "우리 사회에서 고용차별이 바로 잡히지 않는 상태로는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소리' 시간에는 현대자동차서비스에서 해고된 유영선씨와 김은수 연세대 여직원회 회장이 각각 승진차별과 임금차별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다.

열린터, 개설 1주년 기념 세미나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린터」개설 1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가 10월 24일 오후 2시 서울 불광동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공동의 장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열린터는 심리·법률상담과 집단치료 등을 통해 성폭력피해자가 후유증을 덜도록 돕는 일종의 피난처로 현재 거주자 8명을 포함, 모두 20명이 이용했다고 최영애소장은 밝혔다. 최소장은 "성폭력 발생률 세계 3위의 우리나라 현실에서 전체 피해자의 30%를 차지하는 어린이 등 해마다 2천여명의 성폭력피해 여성을 만나고 있다"며 피해자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찾는데 열린터와 같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새로운 채용형태, 여성 가로막는 「담」

최근 채용 등 인력관리제도에 새 바람이 불고 있다. 필기시험보다는 면접을 중시하고 면접에서도 전반적인 인성진단보다는 그 기업체가 원하는 인간형을 가리는 세부적인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

보다 우수한 인재를 구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공개로 하는 대신 교수, 회사 임직원의 추천, 선배사원의 모교방문, 학교별 입사권유 추천팅 등에 의해 응시자를 모으는 기업들도 많아졌다. 그런데 여성고용의 관점에서 이같은 채용방식의 변화가 여성인력이 사회에 진출하는 데 상당한 불이익을 낳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양대 경제학부 김재원교수는 지난 10월 25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마련한 남녀고용평등의 달 토론회에서 "기업체가 인성·적성 검사등을 거쳐 그 사람의 성실성이나 적응력을 평가한다고 하지만 그 내용이 불투명한 실정"이라며 이처럼 면접을 중요하게 여기는 채용방식이 여대생들에게는 한길 불리하다고 말했다.

특히 인턴사원제가 남녀차별의 실마리를 상당히 제공하고 있다고 김교수는 말한다. "원래 인턴제도는 미국에서 대학재학생들이 기업체에서 일하면서 학점을 받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4학년 1학기때 학생을 뽑는 제도가 됐어요. 결국 우수한 학생을 미리 확보한다는 의미밖에 없지요" 김교수는 인턴사원제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여성이 차별받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법으로 따지면 남녀고용평등법의 채용시 차별금지조항에 어긋하는 예가 된다는 것. 그러나 딱히 법적인 근거를 내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나서 인턴제를

일류대생 확보보다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찾는데 활용하기를 기대할 뿐이다.

남녀고용평등의 달 기념, 초청간담회

정부 제2장관실이 주최하는 남녀고용평등의 달 기념 초청간담회가 10월 30일 오전 대한상의클럽 12층 홀에서 최초의 여성 파출소장 최은정씨등을 비롯, 각계 인사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펼쳐졌다.

이날 간담회는 남녀고용평등에 기여한 총리표창 및 장관표창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에 이어 김장숙 정무제2장관의 격려사, 여성단체장·여성교육기관장 등의 발언 등으로 진행됐다. 총리표창(단체)은 금융기관책임자회, 장관표창(단체)은 주식회사 리쿠르트가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수사관 1호 김정옥씨(서울지방검찰청), 최은정(경찰대), 언론계여성이사 1호 이정희씨(연합통신), 대기업이사 1호 권애자씨(현대건설), 소대장1호 이점미씨(여군학교), 지하철승무원 1호 안성숙씨(서울지하철공사), 기술사 1호 박광자씨(국립공업기술원) 등 '여성진출 1호'(관호안은 현소속)가 참석, 눈길을 끌었다.

근로복지공단, 여성채용 31%

노동부산하 정부출연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올해 대졸신입사원 채용에서 여성합격자비율을 31%까지 높여 눈길을 끈다.

때마침 세추위 여성사회진출을 위한 10대과제중 실속있는 여성할당제로 평가되는 여성고용목표제가 어떻게 실행될지에 관심이 쏠리는 와중이어서 돋보이는 일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0월 12일 발표한 올 대졸신입사원합격자 45명중 여성을 14명 채용, 종래 10%에 못미치던 여성비율을 31%로 끌어올렸다.

94년 대졸신입사원중 여성비율 7.7%에 비하면 파격적으로 늘어난 수치다. 근로복지공단이 여성합격자비율을 늘린 것은 최근 발표된 세추위 여성사회진출을 위한 10대과제중 여성의 고용확대 부분을 실천하기 위한 것. 여성합격자를 늘리기 위해 본래 적용해오던 군복무자의 가산점제도를 폐지하고 필기시험 합격점을 기존 65점에서 60점으로 낮췄다고 근로복지공단은 밝혔다. 군가산점을 적용하고 합격점을 65점으로 할 경우 여성합격자는 5명에 그치기 때문에 취한 조치이다. 필기시험에서 걸러진 합격자중 여성합격자는 17명이었고 면접에서 공정한 판정을 한 결과 14명이 최종합격했다는 것.

근로복지공단 이차성 총무이사는 "산재근로자의 복지사업,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등 업무영역에 여성이 오히려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공단내에서도 반기는 분위기라고 전한다.

결국 여성응시자를 1차 시험에 많이 합격시킬 「의도」를 가지고 필기시험에서 군가산점제를 없애고 합격점을 5점 낮추는 등 여성에게 혜택을 주었던 것. 그러나 면접시험에서는 여성을 몇명 합격시켜야겠다는 선을 굵지않고 성별을 떠나 공정하게 평가한 결과 여성합격자가 14명 나왔다는 예기다.

한편 세추위 10대과제중 여성고용목표제는 2000년까지 5급과 7급 공무원의 여성합격비율을 20%까지 늘리고 공기업에서도 여성합격자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높이는 제도이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접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11월 10일 이우정의원(국회 여성특위위원장)등 국회의원 39명의 발의·

서명을 거쳐 국회의안과에 접수됐다.

이번에 접수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요지는 간접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금지조항을 새로 넣자는 것.

이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내 간접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금지조항 신설과 근로자과건법 제정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고평법 공대위)가 국회앞 시위와 국회의원 방문 등 의원입법으로 고평법을 개정하기 위한 활동을 펴왔다. 개정안 발의자로는 이우정의원을 비롯, 김말룡, 원혜영(이상 민주당), 신계륜(국민회의), 강부자(자민련), 박세직, 김해석(민자당)의원이 참여했고 박계동의원 등 의원 32명이 찬성자로 나섰다.

고평법 공대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평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범국민 서명운동 등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부 컴퓨터 경진대회 개최

주부들의 컴퓨터솜씨를 겨루는 제1회 주부컴퓨터(PC)경진대회가 서울YWCA주최(한국IBM후원)로 열렸다. 주부들의 컴퓨터사용을 늘리고 정보화시대에 주부가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위한 대회여서 눈길을 끌었다. 11월 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주부 9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PC경진대회에서는 고급부문에 변희선씨(31·서울시 양천구), 초급부문에는 신정숙씨(29·경기도 군포시)가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변희선씨와 신정숙씨는 모두 결혼전 학창시절부터 컴퓨터 전공자가 아니면서도 컴퓨터를 다뤘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신정숙씨는 집에서 컴퓨터통신을 통해 육아정보를 얻어 15개월짜리 아들을 키우는 데 적용하고 통신 사용자들과 편지를 주고받는 등 생활속에서 컴퓨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신씨는 이웃 주부들이나 어린이들에게도 컴퓨터를 가르쳐주기 위해 컴퓨터 사용 요령을 쉬운 말로 표현, 프린터로 인쇄해 나눠주고 있다고 한다. "컴퓨터가 어렵다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또 컴퓨터를 익히 당장 일자리를 얻기는 어렵더라도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도구'로 열심히 활용한다면 주부들의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씨는 주부들이 손닿는 곳에 컴퓨터를 놓고 소소한 것부터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

고급부문 수상자 변희선씨는 4살난 아이와 곧 태어날 아이 기르기에 바쁘지만 "언젠가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것이 보탬이 될 것 같아 컴퓨터를 가까이하고 있다"고 말한다.

경진대회를 주최한 서울YWCA 강민아 간사는 "주부들이 컴퓨터기술을 익히 일상생활에서 사회와의 교류를 계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기회가 생길 경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며 주부들의 컴퓨터활용의욕을 부추기기 위해 경진대회를 열었다"고 전한다.

이구경 (경향신문 기자)

총무처장관 초청 여성정책 간담회



본회는 지난 11월 8일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룸에서 김기재 총무처장관 초청 여성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원단체장 및 타여성 단체장, 여성계 인사등 100여명의 여성지도자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김장관은 기초연설을 통해 작년연말에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육아휴직제 및 가사휴직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여성들이 평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배려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고 여성 공무원들의 채용목표제 실시 및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 위원들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2000년까지 20~30%의 목표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김장관의 기초연설이 끝난 뒤 질의 응답에서는 여성에 대한 낮

은 의식의 개선문제,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능직 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현재 가사휴직제와 육아휴직제의 실시 정도, 방과후 아동지도에 대한 프로그램 마련, 자원봉사를 점수화하는 문제 등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관한 답변에서 김장관은 "성차별을 불식할 수 있도록 교육지침을 시달하고 있다"고 밝히며 "각 직장에서 직장교육을

통해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능직 공무원을 위해 승진등의 배려와 이에 수반해야 할 교육프로그램도 따로 마련하겠다", "사회 전 분야에서 자원봉사하신 분들에게 이미 점수로 연결할 수 있는 법을 마련했다", "금년에 가사휴직은 21명, 육아휴직은 87명이 신청했고 앞으로 상당히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본다", "방과 후 보육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제도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규칙을 개정중에 있다"고 밝혔다.

직장여성의 프로입문 강좌

본회는 취업여성의 직업의식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 오후 7시~9시 총 4회에 걸쳐 본회 2층 회의실에서 고졸이상의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직장여성의 프로입문 강좌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사회발전과 여성의 역할(한정자 한국여성개발원 교육부장), 직장여성의 이미지 메이킹(박효신 한국광고주협회 홍보부장), 직장여성과 심리극(최윤미 강원대 교수),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윤자야 공인노무사)의 강의를 있었다.

소비자 교육

본회는 지난 11월 3일 본회 2층 회의실에서 소비자 모니터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위해식품 신고, 보상금 제도'(윤종범 서울시 보건위생과), '생활안전의 중요성'(박연홍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육훈련국장)의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서울대 음대 할당모집 공방

본회는 서울대학교가 '96학년도 음대 신입생모집에서 남학생

을 할당모집함으로써 여학생의 선발을 제한한데 대하여 신속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문을 9월 27일에 발송하였다.

서울대의 음대 기악과 할당모집 발표 후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서울대는 기악과 바이올린 전공의 경우 남학생의 숫자가 현저하게 적어 남성 바이올리니스트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할당모집이라는 방법을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본회는 항의공문을 통해 "서울대의 공과대학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의 5%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인데도 여학생에 대한 지원과 할당입학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학과의 여학생 초과 현상에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정"이라며 임시방편적인 조치를 철회하고 국립대학으로서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남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학생모집과 인력양성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96학년도 대학입시의 음악대학 남녀구분 모집에 관한 회신'에서 "본교가 음악대학의 일부 모집단위에서 남녀별 분리모집방법을 채택하게 된 것은 다년간의 교육경험을 통

해 보건대 예술계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대학입학 당시 성적은 일 반적으로 여학생이 우수한 편이나 장기적으로는 창의력과 노력 면에서 남학생의 능력이 우월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 실증분석되어 앞으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예술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현재 본회는 10월 27일 재차 공문을 보내 국립대학인 서울대의 남녀차별적 교육철학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서울대측에 남학생 능력이 우월하다는 실증 분석자료 제시를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협동회원단체 가입

본회는 지난 11월 8일 임시이사회에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의 여성단체협의회를 협동회원단체로 가입시키기로 결의하였다.

인천광역시 여협(회장: 김옥희 인천광역시 직장여성회)은 지난 84년 2월에 창립되었으며 18개 단체 약 40,7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기도 여협(회장: 김선규 새마을부녀회 경기도

지부 회장)은 85년 9월에 창립되어 현재 48개 단체 841,629명의 회원이 있으며, 전라북도 여협(회장: 정영애 대한주부클럽 전북지부회장)은 13개 단체 359,525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시도여협소식

경북여협, 여성지도자 경제교육

경북여협에서는 본회의 후원을 받아 지난 11월 16일~17일 1박2일의 일정으로 울진 백암석류파크호텔에서 여성지도자 경제교육을 실시했다.

150여명의 경북지역 여성단체장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첫째날 "미래경제 여성의 역할" - 금오공대 최용현 총장, "지방자치와 여성의 역할" - 한동대 조강제 교수의 강제가 있었고 저녁 식사후에는 시군별 경제활동 사례발표와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가졌다. 또한 둘째날에는 아침식사후 2시간에 걸친 극기훈련을 비롯하여 "물가는 왜 안정되어야 하는가?" - 경북도청 석창순 지

역경제 과장, "에너지 절약" - 김도연 경북여협 명예회장의 강의에 이어 퇴소식을 가졌다.

경북여협, 회원의 날 행사

경상북도 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경상북도가 후원한 '95. 여성단체 "회원의 날" 행사 도덕성회복실천결의대회 및 한마음운동회를 '95. 10. 17 경주보문단지 가족동산에서 이의근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하여 지역유지와 유관기관 단체장과 도내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등 2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날 2천여 참가회원은 사라져가는 도덕성을 회복하고 건전한가정을 만들기 위해 결의문을 채택하고 "효의 고장 경북만들기"와 환경보호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으며 또한 경상북도 여성단체 회원들의 심신단련을 통한 건전한 정신함양과 이 행사참석자 전원이 합심단결하여 단체간의 화합과 회원간의 친목을 다지고, 마음껏 뛰고 달리며 흥겨움이 넘치는 가운데 여성축제의 한마당이 펼쳐졌다.

이날 행사는 맑은 가을하늘과

주변의 싱그러운 자연속에 22개팀의 특색있는 입장식을 시작으로 내빈친선경기, 200m계주, 발목어뛰기, 찾아서달리기, 줄다리기, 장애물경기를 질서정연하게 진행하였으며, 경기진행중 응원열기가 충천하였고 즐거운 한마당 시간에는 참가자 전원이 하나가 되어 흥겨운 놀이마당을 벌였다.

김혜순 경북 여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화합하는 여성단체가 되고, 지역에 돌아가서는 오늘의 열기와 다짐을 가슴깊이 간직하여 도덕성회복운동과 환경보호운동 등 여성운동에 앞장서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헌신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이의근 경상북도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우리들이야말로 건전가정, 건전사회건설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앞으로 경상북도가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행사 종료후 참가자 전원이 운동장 주변의 쓰레기를 말끔히 치워 환경보호운동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여성문제연구회

창립 43주년 기념식

여성문제연구회는 금년 11월로 창립 43주년을 맞이하여 43년의 역사를 돌이키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1월 11일 본회 강당에서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이번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문화'라는 주제로 조동민 학장(노인대학)을 모시고 기념 특강을 하였다. 또한 회원들과의 친교의 시간 후에 3부에는 '한국문학 속에 나타난 노인인식'이란 주제로 우리문화를 사랑하는 여성학자들의 모임(약칭 문사회)의 연구발표가 있었다.

본회에서는 창립 43주년을 기념하여 자원봉사부를 조직하고 제1회 자원봉사상을 제정하여 5명에게 본상을 시상하였다.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참여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고속철도 경주 도심 통과에 대해 우리문화의 보고요, 거래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경주를 지키자는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때를 맞추어 정부자문기구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최고심의 기능을 갖고 있는 문화재전문위원회에서도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에 본회에서도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 운동」에 참여하였고, 윤용숙회장은 스티커 1만장 제작에 쓰일 성금을 후원하였다.

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장애자 후원시설 방문

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는 연 3회 장애자 수용시설 후원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4일 "제1회 장애자돕기 것갈바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것갈바자회를 통하여 얻어진 수익금으로 후원시설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또한 지난 10월 24일에는 경기도 파주군 법원읍 금곡리에 심신복합장애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주내자육원"도 방문하였다.



대한영양사회

'95 전국 영양사 학술대회 개최

대한영양사회는 지난 10월 13일 롯데월드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1,000여명의 영양사, 식품영양관계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 급식 위생관리 시스템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95 소비자가 만족하는 영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집단급식소에서 위생적으로 신뢰받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단체 급식 위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 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품위해요소 중점 관리 방안(곽동경: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에 관한 특강과 ▲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문제점 및 대책(김진수: 보건복지부 식품관리과장), ▲ 식품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계승희: 한국식품위생연구원 책임연구원), ▲ 위생적인 급식 환경을 위한 단체 급식 시설·설비 계획 및 관리 방안(김경주: 고대 구로병원 영양과장)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또한, 이어진 종합 토의에서는 ▲ 집단 급식의 위생관리 문제점 및 개선 대책(김재종: 서울특별시 보건위생과장), ▲ 집단 급식소 위생 관리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토의(김병구: 고대 안암병원 영양과장), ▲ 단체 급식 위생 관리 시스템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김자혜: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이사), ▲ 식품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김인상: (주)롯데햄·롯데우유 상무이사), ▲ 단체 급식 위생의 문화적 접근(이상로: 문화방송 보도국 기획제작팀 차장), ▲ 급식산업의 주방 위생 시스템(정홍관: (주)HRS

이사) 등 현안 문제에 대한 다각적 논의가 뒤따랐다. 특히, 김재종 서울특별시 보건위생과장은 소비자보호단체와 함께 실시한 집단급식소 합동 점검 결과에 대해 들면서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문제점 및 그 개선 방향을 발표하여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번 행사를 통해 단체 급식의 위생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이 마련되어, 이것을 단체급식 위생관리에 적용시킴으로써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고 아울러 국민 건강 증진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일년동안 각 분야의 영양사들이 펼친 학술발표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연구하는 영양사 상을 정립하고, 그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업체·병원분과 학술대회를 함께 개최하였다.

한국여류시각디자이너협회

소향 갤러리에서 초대전

한국여류시각디자이너협회는 지난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부산 동서공과대학내 소향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가졌다. 국제존타한국연합회 회장인 동서학원 박동순이사장의 초대로 이루어진 이번 전시



우 · 리 · 들 · 의 · 광 · 장

회는 시각디자인의 지방확산과 함께 여류 작가의 활동상을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여협산하 회원단체간의 우의와 협동상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은 한국과 서울의 이미지를 소재로 한 포스터, 일러스트레이션 작품 71점이었다.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농촌일손돕기와 환경보호캠페인

고향사랑, 농촌사랑, 나라사랑의 마음으로 어려운 여건속에 있는 농촌을 돕고 건강한 우리농산물을 지키기 위해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서울시 회원 120여명은 하반기 농촌일손돕기 겸 환경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농촌일손돕기는 강원도 원주 귀래마을에서 가을걷이를 끝내고 일손부족으로 마무리를 못한 고추밭 2,000여평에 고춧대를 뽑아주고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폐비닐 및 버려진 농약병을 수거했다. 이같은 행사는 본회가 "살아있는 땅! 푸른자연을 만들자"는 구호를 걸고 전국 15개 시, 도에서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는 농촌환경보존을 위한 것이다. 이는 고향을 지키고자 하는 농민의 사기진작을 위해 도시소비자인 회원들이 직접 우리농촌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행사이다.



아울러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더욱 더 효과적으로 하기위하여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한 퇴비화 용기와 발효제를 분회장 30여명에게 나누어 주어 각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해서 늘어나는 쓰레기도 줄이고 버리는 음식물 찌꺼기로 퇴비를 만들어 "살아있는 땅"을 만드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한국퇴역여군회

통일전망대 견학

한국퇴역여군회는 지난 10월 13일, 14일 이틀간 회원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군부대와 통일전망대를 견학했으며 이번 견학을 통해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돌아오는 길에는 환경보호운동으로 쓰레기를 수거하였다.

본회 임원중 민주평화통일 하반기 자문위원반 178기의 정영숙, 김옥이, 심금순 여성위원은 지난 10월 30일과 31일, 1박 2일 동안 통일연수에 참가하여 통일정책(윤병의 교수), 분단국 통일의 교훈(장석은 교수)에 대한 강의 및 강인덕 박사의 3명을 모신 종합토의 토론회에 참석하여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다.

중앙부인회

취업대비, 단기적응훈련

중앙부인회는 유휴여성인력 활용과 여성의 경제력 향상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 4월에 이어 두번째로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우 · 리 · 들 · 의 · 광 · 장

주부 및 중년 이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대비한 단기적응 훈련을 실시하였다.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는 주부들이 식당종사자나 보육종사자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이론교육과 현장적응 기능을 습득하여서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자 시행된 이번 훈련에서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연숙 회장의 "직업의식" 강의를 시작으로 유아심리 이해, 응급처치, 안전관리, 유아의 영양 등 유아교육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강의와 식탁장식, 유명식당 현직 주방장의 요리시연으로 수강생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중앙부인회에서는 훈련수료생들에게 식당이나 호텔, 놀이방에의 취업도 알선하고 있다.



한국우먼스클럽

청소년 국제문화교류대회 평가모임

한국우먼스클럽 21회 성아청소년회원들의 국제대회참가(1995년 여름) 평가모임이 10월 16일 본회사무실에서 간담회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청소년회원들의 부모와 인솔책임자 그리고 국제관계임원 등 관심있는 회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또한 현재 국제관계책임지도 임원의 보고가 있었고 청소년회원들의 소감문(대회참가)발표가 있었다.

향상된 학력, 정돈된 매너 그리고 문화교류에서 얻어진 외국의 문화, 역사등 대회참가 결실에 대한 이야기등이 오고갔다. 더우기 이웃나라 친구들과의 서신을 통한 우정의 교류는 국제화시대의 청소년 교육에 있어 보람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주어진 우수학생장학금수여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장학생 대상자는(미국 고등학생) 2명이다.

대한간호협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개최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0월 30일 세라톤워커히 호텔에서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본선을 개최하고 최우수 건강아는 서명희씨의 (충남 당진군) 아들 안단태군, 우수건강아는 최암순씨(서울 성북구)의 아들 손하준군, 이호경씨(서울 동작구)의 딸 안지영양이 각각 선발되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존슨앤드존슨사가 후원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최초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지난 10월 20일 예선에서 1백22명의 참가아기들 중 선



우 · 리 · 들 · 의 · 광 · 장

발된 20명의 모유수유아가 참가했다.

이날 선발된 최우수 건강아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3백만원의 장학증서가, 우수 건강아에게는 역시 트로피와 1백만원의 장학증서가 부상으로 주어졌으며 본선에 진출한 20명의 참가아기 전원에게도 참가 기념패가 수여됐다.

이번 대회에는 손근찬 심사위원장(단국대 의대 교수)을 비롯, 김소인 간협섭외홍보위원장(고려대 간호학과 교수), 이연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근 이화여대 의대교수, 박재옥 순천향의대교수, 김혜숙 간협섭외홍보위원(연세대 간호대학 교수) 등 6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성장 및 발육상태, 질병유무, 모자간접밀도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이향련 간협섭외홍보위원(경희대 간호학과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시상식에서 최영희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유수유의 우수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모유수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열게됐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연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모유수유아가 분유수유아에 비해 훨씬 건강하고 안정감있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으며, 한국존슨앤드존슨의 크리스토퍼 D.베어 사장은 "앞으로도 간협이 추진하는 영유아 건강사업에 적극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심사총평에 나선 손근찬 심사위원장은 본선에 진출한 20명의 아기들 중에서 우열을 가리기가 무척 힘들었다고 피력하고 "균형있는 성장발달과 부모와의 친화력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KBS, MBC, SBS등 주요 방송사와 신문기자 50여명이 몰려 열띤 취재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후원자를 모십니다

본회는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본회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본회의 목표와 활동에 찬성하시는 분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본회는 여러분의 성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10,000원 이상 보내주시는 분께는 1년분 '여성'지를 보내드립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의 동참을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곳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농협 한강로지점
067-01-001600
또는 지로용지 이용

후원금을 보내신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794-4560, 796-4560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본회를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총무처장관 초청 여성정책 간담회 •

최희순 (본회 서기이사)	100,000원
윤용숙, 윤정희, 이종순 (여성문제연구회)	100,000원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부	60,000원
김영희 (서울시 시의원, 본회 근로여성위원)	50,000원
김숙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50,000원
임현숙 (대한영양사회 정책위원장)	50,000원
황선옥	50,000원
조선형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공동대행)	50,000원
오정인, 이순화 (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	50,000원
박영혜 (본회 부회장)	30,000원
이옥기 (대한조산협회 회장, 본회 부회장)	30,000원
이요식 (본회 회계이사)	30,000원
곽광자 (한국걸스카우트 연맹 사무총장)	30,000원
라성숙 (한국여류시각디자인협회 회장)	30,000원
신태희 (서울시청 가정복지국장)	30,000원
김옥환 (본회 감사)	30,000원
한정자 (한국여성개발원 교육부장)	30,000원

은방희 (한국여성문화생활회 회장)	30,000원
안승춘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부회장)	30,000원
윤석자	30,000원
이정자 (전문직 여성클럽 한국연맹 회장)	20,000원
윤수경 (국회 여성특위위원장 보좌관)	20,000원
박종애 (금융노련 여성정책실장)	20,000원
김화자 (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회장)	20,000원
천보경 (천도교여성회본부 회장)	20,000원
한석례 (한중여성교류협회 회원)	20,000원
노미혜 (APR-KOREA 과장)	20,000원
조무석 (숙명여대 영문과 교수)	20,000원
안목단 (한국부녀복지연합회 회장)	20,000원
웅전화자 (부용회 회장)	20,000원
손창희 (전문직여성서울클럽 전회장)	20,000원
구신자 (한중여성교류협회 총무이사)	10,000원
김도숙 (국제존타서울클럽)	10,000원
이인숙 (국제존타서울클럽)	10,000원
강인자 (국제존타서울클럽, 본회서기이사)	10,000원
주일익 (국제존타서울클럽)	10,000원
한옥순 (국제존타서울클럽)	10,000원
임정지 (서울시 시의원)	10,000원

편집후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채용 목표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여성들이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을 비롯한 주요직에 진출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제는 사장 되는 여성인력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

明.

월간여성 · 1995년11월호 통권335호
(매월 10일 발행)
· 발행: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발행인: 이연숙
편집인: 김금래
인쇄처: 코리아 헤럴드
사식·편집: 한라기획
발행날짜: 1995년11월10일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427
☎ 793-5196, 794-4560, 796-4560, 797-5778
FAX: 796-4995

· 편집: 출판공보위원회
위원장: 서은경
위원: 김효자/나미례/문현경/박금옥/배동순/신동식/이경자/홍정희

담당: 이선명



「여성」구독안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계 의견 수렴을 통한 여성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비롯한 회원단체의 사업소개 및 국내외의 여성계 동향, 전반적인 사회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여성」의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본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793-5196, 794-4560

여성경영자 광고코너



원장 차옥순

●미용연구가

30년 전통의

피포리 미영실
02

영등포점 678-3093

오로라 미영실
02

여의도점 782-1633



대표 서명숙

스튜디오 샬롬
02

STUDIO SHALOM
110-470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B1층 16호
TEL 708-4500, 4501 · FAX 771-0258